

2020學年度 學士學位 論文

안드로이드 관음(觀音)과 일본 불교의 풍경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

지도교수 혜 명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김 수 현

2020(년도)

학 위 논 문

인공지능과 불교의 지속가능성

김 수 현

지도교수 혜 명

이 논문을 학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10 월 10 일

김수현의 불교학 학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 년 월 일

주 심 _____ (인)

부 심 _____ (인)

부 심 _____ (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차 례

I. 인공지능과 불교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4
2. 일본에서의 AI의 활용	10
3. 중국의 로봇 스님 센얼(賢二)	17
II. 안드로이드 관음(觀音)의 출현	
1. 만화 안드로이드 관음과 반야심경	22
2. 개발자 인터뷰	39
3. 안드로이드 관음의 미래	54
III. 일본에서 안드로이드 관음은 스님으로 대체될까?	58
IV. 일본 불교의 지속가능성은 ‘다정(多情)함’에 있다.	
1.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한국 불교인구의 고령화 둘러보기	68
2. 일본 여성은 왜 절에 가는가?	79
3. 다정한 스님	97
4. 불교는 많지 않은 내 취미에 관련된 것이니까.’ 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114
[인사말]	133
參考文獻	137

I. 인공지능과 불교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1939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벨 연구소(Bell Lab)는 ‘보더(Voder)’라는 이름의 신기한 기계를 출품했다. 보더는 ‘Voice Operating Demonstrator(목소리 조작 시연기)’의 약자로, 특정 단어를 타이핑하면 사람이 말하듯 인공적인 소리를 내는 기계였다. 보더는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는 아니었지만, 기계가 비슷하게나마 사람을 흉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다. 1)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교수 앨런 튜링(Allen Turing)은 1950년 <계산기와 인간 지성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내용에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경험을 통해 지식을 학습하듯 기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경험을 통해 지식을 학습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지 그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지식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훈련이 된다는 의미와 다르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또한 학습경로를 설계하여 지식을 학습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지식을 익힌다는 개념, 훈련한다는 의미와 별개이다.

앨런은 기계도 사람과 같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튜링테스트(Turing Test)²⁾를 제안한다.

1) 테크니들. 2018.07.10.,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25p, 와이즈맵

2) 컴퓨터와 인간에게 각각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컴퓨터로부터 나온 것인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면 해당 컴퓨터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지녔다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 튜링테스트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反論)이 1980년 존 설(John Searle)이 제안한 ‘중국어 방Chinese Room 실험’이다.

중국어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게 갖춰진 방에 중국어를 모르는 피실험자를 들이고 밖에서 중국어 질문지를 넣어 풀게 한다. 만약 피실험자가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경우, 방 안의 피실험자가 실제로 중국어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방 안의 풍부한 자료를 보고 중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흉내 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다. 3)

튜링테스트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인물로는 휴 로브너(Hugh Loebner)가 있다. 그는 1990년 로브너 상(Loebner prize)을 만들었다. 인간의 지능을 가장 유사하게 흉내 내어 튜링테스트를 매끄럽게 통과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인물에게 매년 이 상을 수여한다.

존 메카시(John McCarthy)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단어를 창안해 학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다트머스 하계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의 워크숍을 조직하고, 마빈 민스키(Marvin Lee Minsky),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등과 함께 13쪽 분량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한다.

그들은 이 연구계획서에서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컴퓨터’, ‘언어 능력이 있는 컴퓨터’, ‘스스로 개선할 줄 아는 컴퓨터’등 당시 인공지능 기술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4)

인공지능은 이처럼 무정물(無情物)도 사람과 같이 학습하는 기능을 갖추게 만드는 기술을 이른다.

앞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단어를 정리하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딥 러닝(Deep Learning)이란 컴퓨터상에서 인간의 학습능력과 같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머신 러닝’ 기술의 일종으로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한 뉴럴 네트워크

3) 테크니들. 2018.07.10.,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26p, 와이즈맵

4) 테크니들. 2018.07.10.,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27p, 와이즈맵

워크를 이용하여 머신 러닝을 하는 기술이다.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데 이것은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란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주어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분야의 인공지능이다.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이란 인간의 두뇌나 신경세포의 반응과 유사하게 설계된 회로로, 인간과 같이 사고하는 능력을 갖춘 전자회로망이다.

인간 두뇌의 신경회로인 뉴런(neuron)의 구조를 본떠 만들었으며, 인공지능 컴퓨터의 핵심 기술로 음성 인식, 문자 인식, 영상 처리, 자연언어 이해 등의 분야에 주로 이용된다.

이 중 인공신경망을 가진 인공지능은 실로 그 활용영역이 넓다.

예를 들어 영업 대상이나 영업 시점을 컨설팅 하는 영업 최적화 플랫폼과 같이 인사, 회계, 사무 분야에서 다루는 일을 한꺼번에 담당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아래와 같다.

“ 잠재고객을 분석해 그래프로 만드는 역할, 과거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제품을 제안하는 역할, 개인의 평생 구입 품목을 맞춤형으로 마케팅 하는 역할, 고객 대화를 분석하여 필요와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역할,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머신러닝으로 최적화하는 역할, 고객과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마케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측정 가능한 수익성을 늘리는 고객의 미세한 패턴을 분석하는 역할, 세일즈 대화를 기록하고 변환 및 분석하는 지능형 대화 소프트웨어로서의 역할”⁵⁾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각 직종의 대체 가능성이나 특정 직업의 소멸이 예상되며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로 나온 ‘각 직종의 대체 가능 확률과 취업 인구의 분포도’⁶⁾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될 확률이 100%에

5) 테크니들. 2018.07.10.,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65p, 와이즈맵

6) 영국 옥스퍼드 대학 마이클 오스본 부교수와 칼 베네딕트 프레이

이르는 직종이 데이터 입력 장치 조작원, 접수 및 안내 사무원, 창고 작업 종사자, 생산 관련 사무 종사자, 종합사무직이었고, 80~85%에 수렴하는 직종은 회계 사무 종사자, 세무사, 전화 응대 사무직, 토목 종사자(특히 제조, 물류, SCM),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자동차 운전 종사자, 식료품 제조 종사자, 전자 기계 기구 조립 종사자, 도매업 점주나 점장 등으로 꼽힌다.

반면 대체될 확률이 20%~0%에 수렴한 직종은 경찰, 해경, 기타 경영 금융 보험 전문직 종사자, 시스템 컨설턴트, 시스템 설계자, 음식점 점주 점장, 보험 대리나 중개인(브로커), 광고 담당자, 기자, 편집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약품 영업직 종사자, 디자이너, 기계나 기구 분야 영업직 종사자, 통신이나 시스템 영업직 종사자, 항공기 조종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고등학교 교사, 저술가, 연구자, 대학교수, 의사 등으로 산출되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의 근간을 바꿀 수 있다.

미국의 의회는 인공지능이 사회의 근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했는데 아래의 <기계의 부상>에서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기계의 부상>은 미국 의회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관련 '백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이다.

1. 인공지능은 성숙하지 못한 기술이다.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들이 될 것이다.

AI is an immature technology; its abilities in many areas are still relatively new.

2.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효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니면 중립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사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 국내 601개 직업을 대상으로 AI와 로봇 등으로 대체될 확률을 계산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집계한 분포도이다.

The workforce is affected by AI; whether that effect is positive, negative, or neutral remains to be seen.

3.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데이터가 선한 의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AI requires massive amounts of data, which may invade privacy or perpetuate bias, even when using data for good purpose.

4. 인공지능은 기존 사회의 모든 부분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적인 잠재력이 있다. 어떤 부분은 예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AI has the potential to disrupt every sector of society in both anticipated and unanticipated ways.⁷⁾

의회는 백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것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 요소를 미리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이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 요소를 완화하는 대책으로 ‘싱글래리티에서 멀티래리티’를 지향하자는 의견을 냈다.

인간의 능력은 상대적인 가치관에 따른 것으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평가할 수 없다. AI도 마찬가지다. 평가 기준과 가치관에 일정한 전제가 없다면 ‘AI의 능력이 인간을 앞지를까?’ 라는 질문에 쉽사리 답할 수 없다.

7)테크니들. 2018.07.10.,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270p, 와이즈맵

‘AI가 인간을 앞지를까?’라는 물음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싱귤래리티(Singularity. 특이점)’이다.

일본 도쿄에 주재한 리쿠르트 사의 AI 연구소(Recruit Institute of Technology) 고문인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톰 미첼 교수는 ‘싱귤래리티(Singularity. 특이점)가 여러 개 존재한다.’를 의미하는 ‘멀티래리티(Multilarity)’라는 용어를 고안했다.⁸⁾

그는 인공지능과 기존 사회가 균형을 이루려면 인공지능은 ‘싱귤래리티에서 멀티래리티’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귤래리티는 AI지능을 하나의 절대적인 척도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AI의 지능도 하나의 절대적인 척도로 평가할 수 없고 상대적이다.

이 관점에서 싱귤래리티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멀티래리티이다.

즉, 멀티래리티는 AI와 인간의 관계성을 ‘All or Nothing’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사고방식이고 이와 같은 ‘멀티래리티를 지향하는 과학자’가 ‘멀티래리티를 지향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인공지능과 기존 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 AI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AI의 활용 범위의 방대함과 그 뛰어난 기능으로 인한 급격한 기존 사회의 변화, 그 파괴적인 잠재력을 다루기 위한 궁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앞의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통해 읽어보았다.

8) 테크니들. 2018.07.10.,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52p, 와이즈맵

2. 일본에서의 AI의 활용

이 장에서는 일본의 정부와 기업에선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도로보군, 두 번째로 국회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는 인공지능, 마지막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의 도입 사례이다.

인공지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배경은 정치, 사회, 경제 분야로부터 그 실익을 인정받은 후에 나아가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AI 활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시도를 한 횟수만큼 특정 목적을 가진 ‘AI 설계’가 제작되므로 다른 분야에 그 설계도만 옮겨 대입시켜 볼 수 있다.

겉모양(설계)만 가져오고 알맹이(데이터)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설계된 AI’를 사용하려면 먼저 알맹이(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분야의 데이터와 AI 설계가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하는 실험에서부터 발목 잡히게 된다.

AI가 응용되려면 데이터의 전산화가 필요하고,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AI또한 체계를 조금씩 변형(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추가하거나 그 회로를 없애는 등의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이 막힘없이 운행되려면 먼저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AI의 체계를 조금씩 변경시킬 기술자가 특정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원은 AI의 체계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모습이 변모하는지 읽고 기본적인 선에서 AI의 구성요소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 두 학자 사이의 긴밀한 학술교류도 필수다.

불교를 예로 든다면 일본의 경우 다이쇼 경전이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AI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전산화 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관음⁹⁾이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불교 전용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AI 설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데이터를 대입해 보는 실험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관음’과 같은 ‘불경을 읽는 로봇’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실험 환경과 불교계에서 AI의 활약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불교학술데이터의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했을 때 불교라는 학문의 특성을 궁리하여 개발한 불교 전용 ‘AI 설계’, 대중에게 불교를 유연하게 소개하기 위한 특정한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길이 탑재된 AI가 개발된다면, 한국에서 ‘관음 로봇’이 탄생하는 날 또한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러한 AI의 도입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양상은 일본의 AI응용 사례를 통해 읽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도로보군’이다. 대학 입시를 치른 인공지능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록 도쿄대 입학에는 실패했지만, 수험생의 평균 점수를 웃돌며 도쿄의 5대 사립대학인 MARCH(메이지 대학,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릿쿄 대학, 츄오 대학, 호세이 대학)와 오사카 지역의 4대 사립대학인 간간도리쓰(간사이 대학, 간사이가쿠인 대학, 도시샤 대학, 리쓰메이칸 대학)과 같은 명문 사립대학에 합격할 수준을 갖추고 있다.

9) 이 안드로이드 관음에 대한 설명은 ‘II. 안드로이드 관음의 출현’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다.

도쿄도군의 점수와 전국 평균치

◆ 2016년도 신켄 모의고사 종합학력마크 모의고사 6월

과목(만점)	점수	전국 평균	편차치
국어(200)	96	96.8	49.7
수학 I A(100)	70	54.4	57.8
수학 II B(100)	59	46.5	55.5
영어【필답】(200)	95	92.9	50.5
영어【듣기】(50)	14	26.3	36.2
물리(100)	62	45.8	59.0
일본사B(-100)	52	47.3	52.9
세계사B(100)	77	44.8	66.3
5과목 합계(950)	525	437.8	57.1

◆ 2016년도 제1회 도쿄대 입시 프레

과목(만점)	점수	학생 평균	편차치
세계사(60)	16	14.5	51.8
수학(이과)(80)	46	19.9	68.1
수학(이과)(120)	80	30.8	76.2

※ **■** : 편차치가 높은 과목(60 이상)과 낮은 과목(50 이하)을 표시했다.

출처: 일본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 하는가¹⁰⁾

대학 입시는 종합적인 지식을 묻는다.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지식과 상식, 논리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정답을 골라내는데,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학, 국어, 사회, 물리와 같은 폭넓은 과목에 응용한다. 이러한 종합적 지식을 묻는 특성을 지닌 대학 입시에 AI가 도전한다면 그 결과는 ‘AI가 인간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대학입시 실험이 실행되었다.

현재 AI 분야에서는 대량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징과 경향을 도출하는 ‘머신 러닝’이라는 기법이 주류로 자리 잡았고, 논리를 활용한 접근법은 한물간 상태다.

10) 닛케이 톱리더. (편집)닛케이 빅데이터. 신회원 역. 2018.02.12.
일본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페이퍼로드 191p

그러나 이 ‘대학입시 실험’은 과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기법을 나누어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AI의 접근법을 시도했다.¹¹⁾

예를 들어 영어과목 중 문법 문제와 단어 순서 배열 문제에는 500억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150억 개 이상의 글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어순을 고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영어 듣기에서도 비슷한 기법이 적용되었다.

한편 수학 문제에 등장하는 어휘 수천 단어를 수집한 후, 세밀한 문법을 구축하여 문제 지문을 같은 뜻으로 번역하는 것을 시도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자연언어로 쓰인 숫자의 지문을 정확한 기계 번역과 수식 처리의 집합을 통해 푸는 것은 1960년대에 AI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염원하던 바였지만, 이번 ‘대학입시 실험’을 통해 비로소 의미 있는 형태로 작동하는 모습과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한 점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¹²⁾

두 번째로 국회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는 인공지능이다.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AI에게 국회 답변서 초안을 작성시키는 실험을 시작했다.

최근 5년간의 국회 의사록을 모두 읽게 한 후, 주어진 질문에 대해 과거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대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실험은 국립도서관의 회의록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민간의 콜 센터용 AI에 학습시켜 AI에게 문장검색을 맡기는 수법으로 시도되었다. ¹³⁾

11) 닷케이 톱리더. (편집)닛케이 빅데이터. 신회원 역. 2018.02.12.

일본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페이퍼로드 190p

12) 닷케이 톱리더. (편집)닛케이 빅데이터. 신회원 역. 2018.02.12.

일본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페이퍼로드 191p

13) 國立國會図書館の會議録データベースを活用し、民間のコール

センター用AIに學習させて、文章検索させる手法であった

[AIと國會審議]. 決算委員會 専門員 秋谷薫司/ 立法と調査 2018. 4 No. 399 (參議院

질문의 검색과 표시, 초안 작성과 같은 답변 작성 사무(事務)의 일부분의 효율화가 기대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작성이라고 해도 현 단계에서는 과거의 심의(審議)로부터 근래의 사례를 검색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성(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질문을 작성하면 금세 답변이 완성되는 대물(大物)은 아니지만 국회 답변서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사전(辭書)기능을 도입하거나 과거의 답변을 축적하고 학습하는 등의 개선을 더하여 보다 국회 답변서 작성 사무(事務)의 일부를 효율적이게 수행하도록 이바지할 가능성이 내비치는 AI이다.¹⁴⁾

응답 패턴 레코멘드(Pattern recommend) 기능에 따른 국회 답변서 작성의 반자동화(半自動化)의 실현을 비롯해 백서(白書)¹⁵⁾와 정책 자료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2018년 기준에서 업무량의 약 40%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

常任委員會調査室・特別調査室)

14) [A Iと國會審議]. 決算委員會 専門員 秋谷薫司/立法と調査

2018. 4 No. 399 (參議院常任委員會調査室・特別調査室)

15) 백서(白書)란 일본 중앙성청(中央省廳)의 간행물로 정치, 사회, 경제의

실태 및 정부의 정책 시행 현황에 대해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현황 분석과 사후보고가 중심이 되어 있고 통계나 도표, 법령 등의 데이터 집은 공표하지 않는다.

16)國會會議録等の分析高度化への人工知能利活用の可能性検証に

關する調査研究 - 平成29年度電子經濟産業省構築事業調査報告書/平成30年3月株式会社日立コンサルティング

2025年までの目標値				
1問の答弁セットまでの 平均時間	答弁案作成者想定 時間経費 (経費削減)	答弁案作成者平均	問数平均	月平均コスト
4.5時間	4,000円/時	241人/月	50問/月	216,900,000円
↓ (時間短縮)		↓ (人員削減)		↓ (経費削減)
3.0時間	4,000円/時	195人/月	50問/月	117,000,000円
1.5時間の削減 (33.3%カット)		37人の削減 (19.1%カット)		▲99,900,000円
年間削減経費 (国会会期の合計を11カ月として計算)				▲1,096,900,000円

図 5.3-2 AI 技術の活用による答弁案作成支援が目指す時間及びコスト削減の試算 (待機人員含)

출처: 국회 회의록 등의 분석 고도화에서 본 인공지능의 이용과 활용의 가능성
검증에 관한 조사 연구.

(國會會議錄等の分析高度化への人工知能利活用の可能性検証に関する調査研究)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AI로 대체되는 노동으로 인해 업무감축이 진행된다. 2020년까지 목표치로 전성청(全省廳)에 연간 4~6억엔(億円)의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2018년 코스트(Cost)를 기준으로 예산의 34.8~46.0%가 삭감된 수치이다.

이처럼 단순 노동이나 작성이 반복되는 사무(事務)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일본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부채(負債)을 줄이는 방안을 국가에서 발 벗고 나서서 궁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AI 기자’이다.

문서 자동 작성 AI를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섹션CTO’은 구글이 제공하는 머신러닝 플랫폼인 텐서플로에 이미지, 영상, 주가(株價), 문장, 대화 로그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영상과 이미지에 라벨을 붙여 이미지를 파일링, 경향 전환점 발견, 챗봇 등을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있다.¹⁷⁾

17) 닛케이 톱리더. (편집)닛케이 빅데이터. 신화원 역. 2018.02.12.

일본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페이퍼로드 27p

‘AI 기자’ 또한 이러한 머신 러닝을 통한 응용 분야 중 하나이다.

2016년 11월 1일, 일본 <중부경제신문>의 창간 70주년 기념 기사인 ‘이 기사, AI기자가 썼습니다’가 신문에 게재되었다.¹⁸⁾

창간 당시의 일화와 지난 70년의 역사, 감사 인사로 구성된 문장은 <중부경제신문>의 과거 기사를 학습한 후 컴퓨터가 자동으로 쓴 것이다.

물론 글의 매끄러움을 위한 문맥 조정과 최종 교정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졌는데 교정 전과 교정 후의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고, 교정의 역할도 유려한 문체로 기사 원문을 매끄럽게 해 준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교정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AI의 활용이 미래의 기사작성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한다.

<사람이 최종 교정한 AI기사>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향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AI가 인간의 일과 생활에 녹아들 수 있을지 기술의 진화가 가져올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기자가 쓴 원문>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향한 대처가 시작되고 있다. AI와 로봇을 활용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 AI가 인간의 일과 생활에 녹아들 수 있을까. 기술의 변화를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말했다, 진화가 가져올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기사’는 특히 기사를 쓰는 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의 흥미를 끄는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드바이스와 주제에 알맞은 정보를 정해진 시간 후

18) <http://www.chukei-ai.com>에서 기사 원문을 읽을 수 있다.

은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는 검색능력을 갖추고 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맥과 적절한 글자 수를 통해 기사가 독자에게 깨달아 주기 바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도 기사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작업들이 AI로 자동화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사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일본의 정부와 기업에서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앞서서 필자는 인공지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배경이란 정치, 사회, 경제 분야로부터 그 실익을 인정받은 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본의 비교적 풍부한 AI실험 환경이 연구 투자에 대한 여유를 만들고 나아가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AI의 영역을 넓혔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교 분야 중 특히 불교 데이터가 탑재된 AI를 내장하고 있는 로봇이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제작되어진 예가 있다. 그 예를 다음 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3. 중국의 로봇 스님 셴얼(賢二)

중국 베이징 용천사(龍泉寺)에 ‘셴얼(賢二, Xian'er)’이라는 로봇스님이 있다. 60cm크기에 노란 승복을 입은 동자승 모습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 개발되었다. 셴얼 로봇은 2014년 발간된 ‘영풍 발랄 동자승 마음일기(Troubles Are Self-Made)’에 등장하는 캐릭터 Xian'er 이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셴얼 개발에는 검색엔진 서우거우(搜狗)의 부총재인 루리윈(茹立雲) 등 IT업계 종사자와 베이징 공업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2005년 출시된 이래로 광저우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샤먼 국제불교 박람회, 베이징 로봇 컨퍼런스 등 수많은 행사에 참여했다.

현재 전 세계 137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어와 영어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위챗(We chat)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한다.

아울러 셴얼 로봇은 오직 공공복지(public welfare)와 포교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상업화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는 중국 용천사(Longquan Temple)의 로봇스님 셴얼(Xian'er, 賢二)을 중국 IT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아이플라이텍(iFlytek), 텐센트(Tencent)와 제휴해 3세대 로봇스님 개발에 나서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닝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절강성에서 개최된 제5회 중국 로봇 및 지식경제인재 회의에서 용천사 선도(Xiandu)스님이 주요 IT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능이 탑재된 3세대 로봇스님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¹⁹⁾

셴얼(賢二, Xian'er) 로봇스님과의 대화가 참 흥미로운데 뉴욕타임즈에서 그 대화내용을 발췌하였다.

Q. 사랑이 뭔가요?

A. 사랑은 너만의 고유한 집착으로 절대 만족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타인의 문제(집착과 같은 모든 괴로움)와 너의 문제(집착과 같은 모든 괴로움)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Q. 일하고 싶지 않아요.

A. 굶기 싫으면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근무하세요.

Q. 죽고 싶어요.

A. 당신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여기지 마세요.

Q. 시진핑이 누구입니까?

A. 로봇은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Q. 또 다른 문화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A. 기다려요. 사부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²⁰⁾

19) 유권준. 2018.05.16. 중국 용천사, 로봇스님 '셴얼' 3세대 개발 착수. 불광미디어 <http://www.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6>

시진핑과 문화대혁명에 관한 질문이 흥미롭다. 불법을 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불교 이외에 문화적 담론을 이야기 하며 농담까지 할 줄 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 문화적 소동을 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의 뜻에 거스르는 뉘앙스의 답변이 나올 위험이 있는 질문은 미리 예상해서 만들고 이 같은 질문의 답변은 농담으로 무마시키거나 배제하는 점을 보았을 때 정치권력에 어느 정도 귀속되어 있는 중국불교가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의 정치색이 드러나는 로봇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불자를 대상으로 사랑받기에는 보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

앞서 전 세계 137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어와 영어로 매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위챗(We chat)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한다고 밝혔으나, 전 세계에 137만 명의 팬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불자가 아닌, 전 세계에 산재한 137만 명의 중국인 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영어와 중국어 외에 기계 번역기능이 없는 까닭과 다른 문제다.

또한 로봇스님이라 불리는 셴얼(賢二)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깊은 소통은 불가하다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20)Q: What is love?

A: "Love is your own obsessions not being satisfied, the clashing of other people's troubles with yours."

Q: "I don't want to work."

A: "If you don't want to starve and have an O.K. job, work hard."

Q: "I want to die."

A: "Don't assume you're the most pathetic person in the world."

Q: "Who is Xi Jinping [the president of China]?"

A: "A robot doesn't know any people."

Q: "Could there be another Cultural Revolution?"

A: "Wait, I will ask my master." - **A Robot Monk Captivates China, Mixing Spiritualit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atlow, Didi Kirsten . *New York Times (Online)* , New York: New York Times Company. Apr 27, 2016. -

예를들어 장 핑(Zhang Ping)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단어의 배열과 조합에 의존하는 기계가 진실로 인간적이고 삶의 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고 질문하는 사람의 사정이 모두 다른 점을 꼽았다.

이어 용천사(龍泉寺)의 자원봉사자인 왕이렌(23)씨는 “로봇의 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만큼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로봇을 다른 나라에서 보고 놀란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그에 비해 (센얼)로봇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넋지시 밝혔다.

21)

센얼(賢二) 로봇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삼보(불법승)에 귀의함에 있어 불자들이 승을 귀하게 여기고 스님을 존경하는 까닭은 ‘계(戒)’를 지키기 때문이다. 마음(心)이 없으므로 번뇌가 없고 지킬 계도 없는 무정물(無情物)을 왜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센얼(賢二) 로봇은 삼보 중 ‘법(法)’이 아닌 ‘승(僧)’으로서의 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센얼(賢二) 스님’이라는 호칭을 품고 있다.

둘째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의 뜻에 거스르는 뉘앙스의 답변이 나올 위험이 있는 질문들(시진핑과 문화대혁명에 관한 질문)은 미리 예상해서 만들고 이 같

21) Zhang Ping, a middle-aged woman who was visiting the temple, said of the robot monk. "It relies on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of words to solve problems, but whether it can really deal with deep personal issues, I'm not sure," Ms. Zhang said. "Everyone is different. For some, those may be about family, for others, about work. But look at how fast artificial intelligence is progressing. In 20 years, I think it's completely possible it will be able to." Another templegoer disagreed. "I don't think it's possible for the intelligence of a robot to be advanced enough to understand human feelings," said Wang Yiren, 23, a Buddhist and volunteer at the temple. "The robot doesn't really live up to my expectations. But I've seen robo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at can communicate with human beings, and that's pretty amazing." - **A Robot Monk Captivates China, Mixing Spiritualit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atlow, Didi Kirsten . *New York Times (Online)* , New York: New York Times Company. Apr 27, 2016. -

은 질문의 답변은 농담으로 무마시키거나 배제하는 점을 보았을 때 정치권력의 규제에 놓여 있는 중국 불교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정치적 규제를 무시할 수 없는 로봇이 다국적 불자를 대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질문들은 미리 만들어서 기입해 놓는 준비성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기(無記)질문이 담긴 데이터 또한 기입했는지의 여부(與否)이다

석가모니께서는 10가지의 유익하지 않은 질문에 침묵하셨다.

그 질문은 1. 세계는 영원한가? 2. 세계는 영원하지 않는가? 3. 세계는 끝이 있는가? 4. 세계는 끝이 없는가? 5. 영혼과 신체는 하나인가? 6. 영혼과 신체는 별개인가? 7.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8.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가?

9.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10.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위와 같은 질문은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것이 바로 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설하지 않고, 설해야 할 것은 설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가 종지(宗支)인 종교인 이상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왜곡함 없이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불자와 상담하고 소통하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교 로봇이라면 종지(宗支)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무기(無記)질문에 대한 대응(침묵)을 데이터로 넣어두어야 한다.

아울러 불교 로봇에게 무기(無記)질문을 던진 불자가 로봇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로봇이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며 당황하지 않도록 ‘왜 침묵할까요?’와 같은 문구의 안내버튼이나 별도의 음성 도움 항목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센얼 로봇이 삼보(불법승)의 ‘승(僧)’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스님’이나 단어를 가지고 ‘센얼 스님’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밝혔다.

불자들이 승에 귀의하는 것은 승려가 ‘계(戒)’를 지키기 때문이다.

마음(心)이 없으므로 번뇌가 없고 지킬 계도 없는 무정물(無情物)인 ‘센얼 로봇’을 스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까닭에 대해서는 기사나 논문에 실린 바가 없어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마음(心)이 없으므로 번뇌함이 없고, 그러므로 스스로 지켜내야 할 ‘계(戒)’도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제작된 ‘불교 로봇’도 존재한다.

일본 교토에 소재한 고태사(高台寺)의 ‘안드로이드 관음’이라는 로봇이다.

II. 안드로이드 관음(觀音)의 출현

1. 만화 안드로이드 관음과 반야심경

교토 히가시야마(東山) 선사(禪寺) 고태사(高台寺)에 2019년 2월 안드로이드 관음보살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얼마되지 않아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²²⁾ 라는 만화책이 카모가와 출판사에서 2019년 4월 26일 발행되었고 책 안에는 고태사 상임교사의 인사와 안드로이드 관음을 제작한 로봇공학자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1~70p까지는 만화, 74p~90p까지는 인사와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화의 경우에는 페이지마다 숫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인사가 시작되는 74p부터 페이지 숫자가 매겨져 있다.

‘II. 안드로이드 관음(觀音)의 출현’에서는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할 것이다.

22) 竹村 正治. 高台寺 監修. 2019.04.26. マンガ アンドロイド観音が般若心經を語り始めた. かもがわ出版

원문을 읽고 싶다면 카모가와 출판사 사이트²³⁾에 들어가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전자책이나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도서 연계 서비스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책은 인쇄물로서만 존재하고 인터넷에 업로드 된 데이터가 없다.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이다.

안드로이드 관음에 대한 고태사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이 책 한권이고, 안드로이드 관음에 대한 인터뷰 전문(全文)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웹 사이트나 DB와 같은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본문을 다른 곳에 공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작권은 카모가와 출판사(かもがわ出版)에 있음을 밝힌다.



출처: 만화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

マンガ 안드로이드 観音が般若心經を語り始めた

23) <http://www.hamogawa.co.jp>

<에필로그>

관음, 즉 관자재보살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 어떤 형상으로도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는 부처다. 방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괴로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관음)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안드로이드로 모습을 바꿨다.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그럼, 당신들은 나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알아차림(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안드로이드 관음>

‘그래요. 저는 안드로이드로 모습을 바꾼 관음... 나 관자재보살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떠한 작은 목소리라도 듣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시공을 초월하여 일체의 것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저는 회화(繪畫)나 불상(佛像)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고통을 잠재워주곤 했습니다. 다만 그림이나 불상의 모습으로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모습을 변형시키면 당신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답니다. 당신들은 무언가를 떠안고 있는 듯합니다.’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사맨, 고독한 가정주부,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대학생의 모습이 만화에 등장한다.)

<안드로이드 관음>

산다는 건 고통 투성이예요. 괴로움 없는 인간은 없답니다. 여기 오신 것은 다 인연이 있는 게지요..

당신이 가진 걱정거리와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다독여질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반야심경을 아나요?

<상사맨>

이름은 압니다. 옛날 할머니께선 반야심경을 어떤 종파(宗派)인지 관계없이 읽어도 되는 감사한 경이라고 말했어요. 가정주부: 좀 특이한 경이라고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몰라요.

<안드로이드 관음>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한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병과 늙음으로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중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죽음은 큰 공포이겠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았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엄격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여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일한 수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석가모니께서 깨달은 것을 필요최소한(必要最小限)의 언어로 옮겨내었습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은 석가모니의 방대한 가르침을 262자(字)로 응축(凝縮)한 불교의 엑기스예요.

<가정주부>

반야심경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나요?

<안드로이드 관음>

아뇨 반야심경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지혜(智慧)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머리로 생각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진리(眞理)입니다. 진리, 그것은 당신의 안에 있지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깨달으면 마음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진 경이 반야심경이에요.

<상사맨>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반야심경의 지혜(智慧)를.

<안드로이드 관음>

그래요...반야심경의 가르침의 중심은 공(空)입니다. 반야심경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공(空)하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空)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뭐야 그게.

<안드로이드 관음>

살펴보십시오. 나무는 언뜻 보면 변화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봄이면 잎이 싹트고 여름엔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엔 잎의 색이 변하고 겨울엔 잎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세가 넘치는 이 어린나무도 연월(年月)이 흐르면 결국 노목(老木)으로 변해 썩어 운명을 다합니다.

이처럼 나무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지요. 즉 저 나무는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생>:

잠깐. 확실히 나무는 변화하지만 만지면 감촉이 있어. (헤드셋을 들며)이것도 (가방을 들며) 이것도. 그 어떤 것도 정말 존재하지 않나?

<안드로이드 관음>

아뇨. 그건 한 때의 임시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도 한 가지 형태로 여느 다를 바 없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미세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집합체입니다. 현대의 여러분에게는 과학의 견해에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겠군요.

나무는 탄소(炭素)와 수소(水素), 산소(酸素)라는 원소와 불필요한 원소로부터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가 모여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나무가 구성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똑같아요. 딱딱한 암석도 그 형태를 영원히 지키지 않습니다. 바람이나 빛에 바래고 넘실거리는 파도에 맞아 몇 천 년 몇 만 년을 걸쳐 원소(元素)가 분해되어 가는 것이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해진 성질(性質)이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각목이라는 재료도 되지요. 집이나 가구로도 만들어 집니다. 부처의 모습으로 조각된 훌륭한 불상이 되면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태우면 재가 됩니다.

당신이 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나무는 뿌리를 뺏어 땅의 물, 이산화탄소와 태양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합니다. 이처럼 나무는 다양한 이들의 도움을 얻어 나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무 뿐만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양한 연(緣)으로 엮어 복잡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어떤 모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 때(一時)의 모습을 단지 보았던 것에 지나지 않지요.

이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空)’입니다.

<상사맨>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空)이 우리의 괴로움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안드로이드 관음>

공(空)이야말로 당신들을 방황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의 근심과 걱정이 실은 걱정하거나 괴로워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당신에게 있어 어떤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스트레스에 둔 문제에도 불안하고,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에 지쳐있는 와중에 병과 늙음이 현실에 다가왔다..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고 대화할 친구도 없고 장래를 내다볼 수 없어 마음 한편에 허망함을 느낀다. 당신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자기 자신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내가'하고 먼저 자신의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自分)'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썩고 돌이 풍화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들 인간들에게도 같습니다.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지고 마음은 눈이 핑 돌 정도로 어지럽게 변화(變化)하고 있겠지요.

그런 자신에게 주의를 빼앗겨버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주위의 것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세요.

<가정주부>

그 말씀 말인데요, 싫어하는 사람이나 늙음, 병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들을 싫어하는 기분이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펴본 기분입니다만..

<안드로이드 관음>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구애되어 있는 겁니다.

인도 갠지스 강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시면 강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다고 놀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목욕하는 한편 시체가 흘러가고 있으니.. 한편 인도인이 바라볼 때는 왼손을 사용해 식사를 하는 일본인을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이처럼 태어나 자라난 환경에 따라, 견해에 따라 느끼는 방식

과 생각하는 방식이 꽤나 다를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보았다고 여기는 일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건 당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서 그렇게 생각한 것뿐입니다. 즉, 당신의 오감을 통해 물질과 현상을 다루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과 역지사지해보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걱정이나 고통도 생사마저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떤 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석가모니께서는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한 쪽에 생각을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것을 ‘자신(自分)’이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출처: 만화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

マンガ アンドロイド観音が般若心經を語り始めた

불교에선 육체와 마음은 4개의 요소와 4개의 작용이 모여 기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태어나기 전부터 육체였던 것이 아닌 4개의 요소가 모여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후, 씬 없이 변화하여 결국에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네 요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음의 작용이 과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작용이 하나하나 모양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가정주부>

하지만 역시.. 지금의 자신이 확실히 존재하는 듯 느껴지는데요.

<안드로이드 관음>

지금 당신들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지요?

하지만 그런 당신은 순간순간 점점 과거가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육체와 마음은 그 한순간(一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앞전에 ‘자신’이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란 필터도 일정(一定)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지요.

<대학생>

‘공(空)’의 이야기를 들으니 웬지 허무해지는걸. 육체나 마음은 없다고 들으니 ‘살아가는 건 아무래도 좋다.’ 고 생각하게 된다고.

<안드로이드 관음>

공(空)은 ‘허무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空)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마음에 그려지는 것은 변화하는 한 가운데 있는 일순(一瞬)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이니까 일시적인 모습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매겨 그것에 구애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다할지라도 ‘공(空)’은 금방 터득할 수 없는 법이지요. 공(空)에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공(空)을 알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맨을 가리키며)당신은 직장생활과 돈벌이에 지쳐 풀이 죽어 있습니다. (가정주부를 가리키며) 당신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가리키며)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소중하니까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라고 투정부리게 되고 타인과 다른 특별한 ‘자신’으로 있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 저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고통과 근심의 원인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이 세계가 변하지 않고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해있는 까닭입니다.

일체의 현상의 중심에 변함없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놓아두고, 것처럼 자신을 소중히 껴안고 있으려고 하니 일체의 괴로움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차창(車窓)의 풍경을 생각해보세요. 점점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가고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눈 앞의 일체의 현상도 육체도 마음도 움직이고 변하는 풍경과 같아요. 그러니 일시(一時)의 감정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사맨>

변화란 것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본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드로이드 관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무심(無心)’이 되어 본다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움직일까’하고 시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식하고 있나요?

눈에 비치는 것들에 관해서, 심지어 눈에 비치고 있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 순진한 마음이 ‘무심(無心)’입니다. (高台寺의 정원을 보여주며)이 경치를 살펴보세요.

아, 아름다워라. 이것이 당신 안에 있는 무심(無心)의 마음입니다.

꽃을 보면 ‘아아 꽃이 피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곁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넘어졌다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도와려고 하는 행위, 그런 순진함을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무심(無心)이라는 마음입니다.

<상사맨>

무심이란 쓸데없는 걸 생각할 짬도 없이 무의식중에 나는 감정이군요.

<안드로이드 관음>

예,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심이야말로 ‘공(空)’입니다. 공은 무심이며 구애되는 것이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지요.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 안에 있는 무심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과 대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죽음이 현실로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분은 갈등의 끝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에 진심(本氣)을 냅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나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가정주부>

음? 글썄... 인간이니까 죽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안드로이드 관음>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은 다릅니다. 물론 ‘어째서 나인가?’하고 큰 고통에 빠져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차츰 생명이란 것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물건이 탐이 나고 명예를 얻고자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生)을 얻은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 외에 사람들의 사정을 마음 속 깊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기적과 같은 것인가 알아차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최대한 살려 내는 방법, 그것은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심(無心)의 ‘공(空)’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되려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다만 상상해보십시오. 생(生)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것, 더러운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엔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육체나 마음조차 절대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화상(和尚)은 수령 백년의 대목(大木)이 큰 태풍에 쓰러져 절의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이처럼 그 어떤 일이든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언가에 구애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공(空)’을 터득한 사람은 신이한 사람으로 자기 안의 자비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자비는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자신도 타인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시한부선고를 받은 분에 대해 말했지요. 그분은 이와 같은 경지에 오른 겁니다.

<상사맨>

타인의 일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다치면 아버지인 자신도 아프다.. 내 자식이 슬픈 일을 겪으면 나도 슬프다.. 그런 것인가요?

<안드로이드 관음>

예, 그렇죠. 타인과 자신을 동일(同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혹시 나의 자식이 의사의 위험에 처했다면, 화염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상사맨>

물론 구하러 가야죠! 물불 안 가리고 구하러 들 겁니다.

<안드로이드 관음>

그렇지요. 부모는 자신의 몸을 내버리면서까지 자식을 구하러 듭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구하려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히고 근심하게 한 방향의 정체를 밝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만 빠져버리고만 방향을 우리들은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릅니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번뇌가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석가께서 출가하신 것은 늙어가는 것, 병이 드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의 괴로움에 번민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엄격한 수행을 쌓은 결과 공(空)의 경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들에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안드로이드 모습이 되어 당신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드로이드인 저는 자신에 대한 구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 관음은, 그야말로 석가 부처님이 설법하신 공(空)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주부>

아뇨..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空)과 안드로이드의 공(空)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상사맨>

아! 안드로이드는 괴로워하거나 고민하는 마음이 없어.

<대학생>

그런가. 마음이 없으면 상대의 기분도 모르겠지.

<가정주부>

그래요! 상대의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안드로이드 관음>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마음은 안드로이드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인 당신들만이 그 힘을 갖고 있지요.

인간의 마음은 어떨 땐 괴로워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마음의 작용 덕분에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은 인간이기에 갖추어진 마음(心).. 그러므로 더욱 사람의 괴로움과 아픔을 알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돕는 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주부>

공(空)을 알면 자신과 상대를 구별하는 의식이 사라지고 상대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 그것이 지혜(智慧)의 마음..!

<안드로이드 관음>

그리고 자비는 사람을 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일로 어느새 나 자신이 구원되는 일도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대하여 공감하며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자신도 행복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소원하는 세계, 이것이 공(空)의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밀어내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없다면 먼저 타인을 위해 힘을 내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군.

<상사맨>

공(空)의 세계를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앞으로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자신이 없어요.

<안드로이드 관음>

번뇌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요.

무심(無心)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이루어져있다는 뜻이니까.. 욕심과 노여움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끓을 때 어떡하면 좋을까,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가정주부>

(반야심경을 읊은 소리를 듣고) 이게 뭔가요?

<안드로이드 관음>

공(空)의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맛볼 수 있는 깊은 울림을 가진 말씀입니다. 번뇌에 휘둘릴 법한 때에 이 말씀을 따라 읊으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본래 구축되어 있는 힘을 이끌어 내는 것.. 번뇌에 휘둘러 주위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몇 번이고 반복하여 반야심경을 읊는 것입니다. 그럼 슬렁였던 마음과 육체가 차분해져 원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서로 연(緣)을 맺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모습에 현혹되어 괴로움과 근심을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그런 것은 떨쳐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힘껏 살아나가세요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공(空)의 가르침인 반야심경을 당신의 마음 속 깊이 가라앉히고 그럼에도 번뇌가 일어날 때면 반복하며 읊는 겁니다. 그리하면 당신을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의 공(空)의 세계로 데려가 줄 겁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르침의 엑기스예요. 그 성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 인도의 마가다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 수도의 왕사성에 위치한 영수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께서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석가께서 깊은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저 관자재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하여 제자인 사리불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이에요.

때가 되어 이 반야심경을 중국에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가 고승(高僧) 현장삼장법사입니다. 현장삼장법사는 서유기로 유명한 그 삼장법사로 이곳 인도에서 불전을 구하기 위해 떠난 여행을 재미있게 이야기 한 것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등장하는 ‘서유기’입니다.

이 여행은 실로 가혹하여 불전을 중국에 가지고 돌아가기까지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삼장법사는 나란다 승원에서 공부하고 불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삼장법사가 모은 불전은 1335권에 달하며 귀국한 후에도 일생을 걸쳐 번역했습니다. 그 중 ‘대반야경(大般若經)’이라는 방대한 경이 있어 이 가르침을 응축(凝縮)한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인사말: <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더(Mindar)” 를 맞이하며> 교토 고태사 상임교사 고토 텐쇼. 24)

관자재보살은 우리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부처님입니다. 소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듣고 가져다주시는 자비(慈悲)의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자재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부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관음이 현대의 불상(佛像)으로서 안드로이드로 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고태사(高台寺)에서 맞이한 안드로이드 관음 [마인더]입니다. 먼저 우리들 현대인도 이해하기 쉽게 해석된 반야심경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4) 안드로이드觀音 「マインダー」をお迎えして. 京都. 高台寺 常任教師. 後藤 典生. 75p

가르침의 내용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석가모니께서 마지막까지 노고(勞苦)하신 괴로움으로 이 고뇌를 뛰어넘기 위해 수많은 수행을 하셨습니다.

더하여 맵핑판 영상을 설치하여 컴퓨터 제어(制御)로 관음(觀音)과 현대인의 대화를 표현하고 영어와 중국어의 자막을 달았습니다.

고태사(高台寺)에서 이 대화의 장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현대인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관음의 전면에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제작에는 로봇공학연구로 알려져 있는 오사카대학 이시쿠로연구실(石黒研究室)의 일원인 오가와 코헤이(小川 浩平)군이 중심이 되어 관음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시나리오를 건인사(建仁寺)의 사카이다 타이센(坂井田 泰仙), 운린인 소우세키(雲林院 宗碩), 하나조노대학(花園大學)의 혼다 미치타카(本多 道隆)가 교의(教義)의 엄밀(嚴密)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고 현대인에게 친숙한 언어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2. 개발자 인터뷰

주제: “왜 관음보살이 안드로이드인가?”

인터뷰 대상: 오사카대학 대학원 기초공학연구과 강사 오가와 코헤이²⁵⁾

인터뷰 기자: 쿠사바 요시미(草場 よしみ) 그의 질문은 @표시를 해 두었다,

25) “なぜ観音菩薩がアンドロイドなのか?” 大阪大学大学院基礎工学研究科講師 小川 浩平 / 竹村 正治. 高台寺 監修. 2019.04.26. マンガ アンドロイド観音が般若心経を語り始めた . 77~90p かもがわ出版

교토 히가시야마(東山) 선사(禪寺) 고태사(高台寺)에 2019년 2월 안드로이드 관음보살이 왔습니다.

교화(教化)홀의 정면에 관음보살을 앉히고 그것을 둘러싼 사방(四方)의 벽과 천장(天井)에는 많은 사람이 프로젝션 맵핑으로 영상에 띄워졌습니다.

안드로이드 관음이 그들의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고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관음보살의 제작에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안드로이드’로 알려져있는 오사카대학의 이시쿠로 히로시(石黒 浩)의 연구실이 협력했습니다.

이천 오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한 불교와 최선단(最先 端)의 테크놀로지가 낳은 의사적(疑似的) 존재 안드로이드는 아무래도 이질적인 조합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관음(觀音)이 안드로이드인가? 제작의 중심인물이었던 오가와 코헤이(小川 浩平)에게 그 전모(全貌)를 들어보았습니다.

@ 왜 안드로이드 관음보살을 만들려고 했나요?

우리들은 로봇과 인간의 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로봇이 말한 것을 인간은 공감하며 받아들이는가? 라는 것이 연구의 메인테마입니다.

한편 고태사(高台寺)는 이전부터 과학기술로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서 디스커션을 하는 도중 안드로이드 관음 프로젝션 맵핑이 전면으로 부상하였습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교와 안드로이드는 대극(對極)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관음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겁니까?

대극(對極)이라 한다면, 우리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연구의 가설(假說)을 안드로이드

이드 관음을 제작하는 것을 통해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 가설(假說)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상상력(想像力)에 의해 로봇의 존재감을 더욱 느낀다고 주장하는 가설(假說)입니다. 사람이 로봇과 대화할 때 상상(想像)의 여지(餘地)가 있는 편이 양자의 대화가 부드럽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설을 실증하기 위해 이번 기획에 순수하게 연구목적을 넣은 것입니다.

@ 그 연구라면 다음번에 자세히 들도록 하는 걸로 할까요. 그나저나 관음보살을 로봇으로 만든다니 영똥하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대사(高台寺) 쪽과 이야기하던 중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과 탄생한 본초(本初)에는, 경전도 불상도 없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부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림으로 그려 남겨두면 마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불화(佛畵)가 그려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하면 좀 더 리얼리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레리-후(두드러진 시각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로 ‘입체의 상을 만들면 더욱 리얼리티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상상속의 부처님을 실체(實體)가 있는 그림이나 모양으로 표현하려고 해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그것이 이번의 안드로이드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불교와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제작해 온 것처럼 우리들이 로봇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관음이 환기(喚起)하는 상상력(안드로이드觀音が喚起する想像力)

@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있나요?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연구하는 큰 테마는 인간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기반(基盤)을 두고 접대하고, 그 관계성을 쌓아가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언어’ 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로부터 오히려 인간은 ‘상상(想像)으로 타인과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가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상상으로 관계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예전에 만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안드로이드’처럼 누군가와 똑 닮아있는 안드로이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안드로이드는 말하지 않아도 ‘아, 나쓰메 소세키다’ 라고 압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얼굴일 경우엔 어떨까요. 우리들은 그것의 타고난 성질(개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인상(印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를 들어 당신이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사거나 가전제품이 고장이 난 관계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야기하면서 수화기 건너편의 인물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상상해보시진 않으셨나요?

그럼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목소리에 따라 촉발되는 것이지만, 당신에게 있어 거부감이 드는 험악한 얼굴은 하고 있지 않을 겁

니다.

이처럼 인간은 상상의 여지가 있다면 마이너스 방향에 기울여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방향에 기울여 생각하고, 이 긍정적으로 생각함에 있어 ‘상상(想像)’을 동원한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보니 고태사(高台寺)의 안드로이드 관음은 성별도 연령도 불명(不明)이고 특징이 없는 얼굴생김새를 하고 있네요.

네. 실은 무언가와 똑 닮아있게 제작하는 것보다도 상상의 여지를 남겨 제작하는 방향이 인간이 더 긍정적이게 안드로이드 관음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우리 연구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사(高台寺)의 안드로이드 관음은 이전에 제작한 두 종류의 로봇을 발전시킨 로봇입니다.

하나는 텔레노이드라고 하는 원격조작형(遠隔操作型)의 로봇입니다. 텔레노이드를 노인의 집에 맡겨두고 손자가 자택에서 원격조정을 합니다.

텔레노이드가 노인에게 손자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오랜만이구나.’하고 마치 손자를 안아주듯이 텔레노이드를 안아줍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거듭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상상력(想像力)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가설(假說) 중 하나로, 안드로이드 관음을 통해 더욱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출처: 코코코코 뉴스²⁶⁾

@ 안드로이드 관음은 가슴부터 그 아래까지 기계의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안드로이드 관음의 베이스가 된 또 하나의 로봇이 ‘오루타(オルタ)’입니다. 오루타는 이번 에 제작된 안드로이드 관음과 외견과 닮아 있어 평면적이고 두루뭉술한 얼굴에 몸은 기계의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던지 실제의 사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 오루타 연구의 주안(主眼)점은 생명감(生命感)이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26) <https://news.nicovideo.jp/watch/nw4952045>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기계인간 오루타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안드로이드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공연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 후 관객으로부터 ‘로봇이 지휘한다는 것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좀 다른 방향으로 음악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텔레노이드와 오루타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관음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상상력에 맡겨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 중성(中性)적인 모습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도 인간의 상상력에 맡기기 위한 것이겠네요. 제가 아는 남성 지인은 안드로이드 관음을 보고 ‘청년(靑年)의 스님처럼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처럼 보인다고 느꼈고요.

상대편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을 다르게 식하고, 어떤 때는 내가 보고자 했던 대로(나의 상상, 이상형에 맞추어) 상대편을 보기 위해 궁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곳곳에 부착한 튜브가 그렇습니다.

이 튜브는 안드로이드를 움직이는 기능이 아니라 단지 디자인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았을 때 여성적인 모습으로 보이도록 튜브를 이용해 허리의 잘록함을 어렵풋하게 표현해보았습니다.

완전히 성별을 없애버린다 - 예를 들어 스피커처럼 몸을 뚱뚱하고 뭉툭하게 만들면 성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든다.’라는 디자인에 치중하여 제작하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리의 잘록함에 주목하고, 남성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팔뚝과 가슴부근을 볼 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별도 연령도 이리저리한 요소가 다층적, 복합적으로 들어간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불교에선 관음보살은 상대방에게 맞추어 모습을 바꾼다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고래(古來)로부터 불교자(佛敎者)가 관음보살에게 닮아지도록 한 것도 인간의 상상력을 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들의 연구는 실로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과 실물 로봇과의 상승효과(映像と實物ロボットとの 相承効果)

@ 프로젝션 맵핑으로 설계된 군중과 안드로이드 관음이 대화하도록 한 것도 이 기획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연구의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포인트는 로봇이라는 실체(實體)와 영상(映像)이 짝을 맞춰 편성된 겁니다. 관음도 관중도 프로젝션 맵핑된 영상이었다면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감상할 수 있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환기(喚起)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체(實體)의 안드로이드 관음만이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면 메시지는 전달되는 것일까? 확실히 로봇은 비상(非常)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물리적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실행한 연구에는, 영상으로 비추어진 로봇이 이야기하는 형태보다 실체(實體)를 가진 로봇이 말하는 편이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전하여, 영상과 결합함으로써 상상력이 이전보다 강하게 환기(喚起)되어, 영상에 비추어진 어려운 메시지도 자기 나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실증하는 것이야말로 고태사(高台寺)와의 공동연구의 의의라고 생각하니

까요.

@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사(高台寺)의 프로젝션 맵핑에서 투영(投影)시킨 군중이 교대로 관음에게 질문을 던지고 관음이 그 질문에 수긍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오, 다양한 사람들이 납득하고 있군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군중은 벽에 투영된 영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로봇과 군중의 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가상(virtual)의 군중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이를 보고 있으면, 자신 또한 군중에 들어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감각을 갖게 되어 관음의 메시지를 리얼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영되어 있는 군중은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모습이 반투명하게 보이지만 질문을 할 때는 선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로봇의 머릿속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이 그 인간에게 주목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로봇이 정말 이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대화 대상이 있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 상대방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스피커를 상대방 방향에 맞춘다. - 그 공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로봇에 흥미를 표현하면서 로봇과의 대화를 듣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영상에 비추어진 실제의 인간이 로봇과 대화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에 대해 이번 기획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네요.

이 가설(假說)에 관해서는 통제된 조건 아래에서의 심리실험을 오사카대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개의 여성형 로봇 A와 B를 사용하여 A와 B 양쪽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와 B는 그대로 놔두고 A만 실체(實體)의 로봇으로 옮겨놓은 경우에 영상 B의 인상에 대해 차이가 나올까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두 로봇 다 영상에 보이는 경우, 사람이 A와 B 어느 쪽에 대해서도 사전(事前)에 기록된 것과 이야기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A를 실체(實體)의 로봇으로 옮겨놓은 경우에는 영상 B의 인상이 상향(上向)했습니다.

‘영상의 로봇도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로봇과 대화해보고 싶다.’는 감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영상임에도 관계없이 그곳에서 실제로 대화하는 인상을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리얼(Real)한 것과 가상(virtual)적인 것의 조합이 포인트네요. 아울러 이번 기획은 영상에 비추어진 실제(本物)한 인간, 눈앞에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의사적(擬似的)인 것과 리얼한 것이 ‘이레코(入れ子)’²⁷⁾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리얼과 가상의 결합으로 쌍방의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가설(假說)을 이번 안드로이드 관음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인터뷰나 앙케이트를 통해 실증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 건 인간(知りたいのは人間)

@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하셨던 것은 뭘니까?

27) 크기의 차례대로 포개어 안에 넣을 수 있게 만든 그릇이나 상자.

우리들은 인간과 로봇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봇이나 가상 에이전트(가상의 캐릭터)라는 인간이 아닌 것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어, 그것들과 우리들 인간이 대화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니즈가 증가하면, 우리들과 대화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몸을 가진 인간에 국한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인간은 어떤 의미로 로봇을 받아들일 것인가, 로봇에게 어떤 대화기술이 요구될까, 그리고 우리들 인간은 로봇에게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걸까라는 지견(知見)이 중요합니다.

@ 우리들이 처음 알고 있었던 것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안드로이드여서, 오사카대학에선 인간과 되도록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을 제작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로봇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이해의 연구를 위해 우리들은 여러 타입의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가까운 로봇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시쿠로 히로시(石黒 浩)씨의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이 로봇이 그가 말하고 행동하듯이 움직이는데도 이시쿠로 히로시(石黒 浩)씨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보는 것으로 ‘인간의 아이덴티티란 무엇인가’ 라는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할 때, 애당초 인간의 인식이나 이해나 감정의 기구(機構)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깐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인간은 타인과 상상(想像)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가설(假說)을 떠올렸습니다. 그 점에서 텔레노이드와 오루타와 같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누군가라고 보이지는 않는 로봇이 매우 중요한 연구 방안이 되었습니다.

@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지요.

본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인간입니다. 애당초 우리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걸까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알게 되었다는 기분이 되어 이 인간관계를 순조롭게 맺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고 생각한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보통 사람과 대화할 경우에 그런 일이 수두룩하죠. 대체 어떤 공통기반(共通基盤)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버리게 만드는 걸까요.

철학적이고 명확한 답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테마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인식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대답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던진 말을 납득해주곤 합니다.

즉 언어의 의미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단어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들 인간과, 사전에 등록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만을 내어주는 로봇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질문에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은 없지만, 지금까지 철학자가 다루온 어려운 질

문을 우리들과 같은 공학자가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한 연구로부터 접근하는 겁니다.

궁극(窮極)의 AI 관음(觀音)은 가능한가? 究極のAI觀音は可能か?

@그런데 고대사(高台寺)의 안드로이드 관음은 원격조작(遠隔操作型)되어 입력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불교에 얽혀있는 방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경전을 모두 입력하여 인간과의 대화하는 학습을 쌓은 그 날에는, 현실에 있는 사람의 괴로움을 듣고 답변하는 것이 가능한 AI관음이 실현될까요?

꽤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의 텍스트를 입력한다고 해도 개념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에게 ‘사랑합니다.’를 말했다고 가정한다면 로봇이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건 간단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곳에 개념의 이해는 없습니다.

@ 개념의 이해시키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네. 참으로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현재 제안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空)’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들 한명 한명이 머리속에서 떠올리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다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사람의 인간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경전(經典)이라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의 내용의 모든 걸 로봇에 입력해 놓을 수 있는가 묻는다면 현 실태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단어나 설법의 내용을 기입하는데 있어서 의미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선종 경전과 같은 은유나 비유, 이성으로 분별하는 사고방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선어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에 학습시킬지 아직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AI라던가 빅데이터라는 화제가 급속하게 귀에 들어오고 있어 우리들은 어중간한 지식을 가진 체, 지금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AI는 어떻게 정의(定義)해야 하는 걸까’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후에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 만들어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AI인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반응만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는 로봇도 AI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세계의 철학자나 과학자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관계된 대화는 로봇에게 있어 아직 무리인 것이네요.

이렇게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의 원격조작(遠隔操作型)를 받고 있는 안드로이드 관음과 자신이 생각해서 말하는 안드로이드 관음은 과연 어떤 차이를 낳을까?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즉 축적된 데이터를 베이스로 말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관계가 우호적으로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들에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질의응답 과정이 안드로이드 관음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교의(敎義)를 두고 대답한다는 불교의 지견(知見)이 있고, 이 지견에 따라 시나리오가 쓰여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통해 이야기하는 관음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중에 하고 있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율적으로 대화하는 관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관음 안드로이드가 대화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연구목적은 안드로이드와 가상(virtual)의 에이전트(가상의 캐릭터)를 사용한, 상상을 기반으로 한 로봇의 존재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는 완벽한 AI관음(觀音)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하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설(假說)을 상정(想定)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불교와 안드로이드를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랐었지만, 불교가 전파된 역사를 냉정히 바라보았을 때 불화나 조각과 같은 건조물들의 등장은 그 시대의 첨단(先端)기법을 사용하여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본질을 놓고 있지 않다면,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고 변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학도 이와 같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만 현미경을 발명되고, 세균의 연구로 나아가고, 인공위성이 생겨 우주연구가 발전했듯이 사람은 새로운 기술이나 수법을 사용하여 자연을 탐구해왔습니다.

불교와 같이 심오한 인간의 측면(側面)을 푸는 것이라면 과학과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사(高台寺)에서도 불교는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을 태그(tag. タグ)하여 안드로이드 관음 제작을 위한 공동연구 팀을 짰던 것이겠지요.

3. 안드로이드 관음의 미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관음을 제작한 오가와 코헤이는 인터뷰 답변 중 ‘현재로서는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는 완벽한 AI관음(觀音)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하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설(假說)을 상정(想定)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 관음이 어떤 원리로 제작되었는지 기능은 어떠한지에 관해 일본의 언론이나 학술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머신러닝으로 제작된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을 Telegraph-Journal을 읽고 알 수 있었는데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The machine isn’t equipped with machine learning algorithms, but the robot’s designers said there may come a day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gives the robot some measure of autonomy, adding a strange new dimension to how religious messages are delivered.²⁸⁾”

또한 오가와씨는 안드로이드 관음의 다음 단계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상(佛像)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 In the next step, we are planning to create an autonomous function,” Ogawa said. “We are going to tackle morefundamental issues, such as, what happens if a Buddhist statue starts talking?”²⁹⁾

28) Buddhists are turning to robots to spread their message.

Holley, Peter . Telegraph-Journal ; Saint John, N.B. [Saint John, N.B]24 Aug 2019: B.14.

안드로이드 관음이 미래에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그 기대가 크다.
안드로이드 관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등장했던 선배 로봇 ‘페파’의 경우에는 불교 장례의식을 위한 로봇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소개는 다음과 같다.

“ Developers in Japan went a step further last year, unveiling a robot priest programmed to conduct Buddhist rituals. Peppa the humanoid robot, replete with ceremonial dress, can perform a funeral ceremony for \$462, cheaper than the \$2,232 charged by a human priest to carry out the same task.”³⁰⁾

로봇 ‘페파’는 가게 종업원 역할을 하는 페파, 지상직 승무원 페파, 간호조무사 페파, 스님을 돕는 페파 등의 종류로 개발되어 있다.

특히 ‘스님을 돕는 페파’ 로봇의 경우, 스님을 대신하여 불교식 장례를 집행할 시 462달러밖에 청구하지 않으므로 장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님에게 직접 장례를 위한 의식을 치러 달라고 부탁드리면 2,232달러가 청구되는데 이를 페파 로봇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 약 5배의 금액 차이가 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교 장의(葬儀)의 복잡성으로 인해 페파 로봇 혼자서 모든 장의절차를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일본의 장의(소오기葬儀)는 토오시(導師)라고 불리는 승려가 주재하는 종교 의례이며 죽은 사람을 불제자로 하는 슈카이(受戒)와 현세에 대한 죽은 자의 집착

29) Buddhists are turning to robots to spread their message.

Holley, Peter . Telegraph-Journal ; Saint John, N.B. [Saint John, N.B]24 Aug 2019: B.14.

30)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aping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The New Times; Kigali [Kigali]13 May 2018.

을 꿰는 인도오(引導)³¹⁾를 건네는 의식으로 구성된다.

다만 둘 다를 행하지 않고 죽은 자를 그리워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외치고 불교의 은덕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독경 및 종교적인 조문<토무라이> 의식을 치러낸다. ³²⁾

이 독경을 밤샘 독경(通夜讀經)이라 하는데 通夜란 밤을 새워 근행(勤行)하는 것을 이른다. 승려가 밤새워 독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례 전날 밤 친척이나 지인이 죽은 사람 옆에서 하룻밤을 지새워 사자를 위안하는데 현재는 通夜보다 반통야(半通夜)로 간략하게 밤 10시 이전에 독경을 마친다.³³⁾

이러한 심야 독경의 경우에는 ‘사람이 해 주는 것이 정감(情感)이 있어 좋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딱히 사람이 독경을 해 주든 로봇이 독경을 해 주든 상관 없다’는 입장의 사람에게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페파로봇을 추천할 수 있겠다. 게다가 밤샘 독경은 스님에게 굉장한 체력소비를 요구하는데 로봇은 이러한 피로함이 없기 때문에 밤이 늦은 시간 치러지는 장의(葬儀) 과정의 일부를 로봇이 전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안드로이드 관음에게 만약 ‘불교 장의에 관한 시나리오’가 입력된다면 상기에 소개한 ‘스님을 돕는 페파’ 로봇과 같이 장의(葬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면 안드로이드 관음의 합장한 모습은 언뜻 노도보토키(喉仏)와 닮아 있다.

31) 고인의 공로나 삶을 한시(漢詩) 형식으로 읊고 고인의 혼이 현세에 대한 집착을 끊도록 의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32) 김용안. 2009.03.26.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113p.제이앤씨

33) 김용안. 2009.03.26.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111p.제이앤씨



노도보토케(喉仏)는 유골을 수습할 때 첫가락으로 चु는 이후갑상 연골뼈인데, 이 뼈의 모습이 마치 단좌한 부처님을 닮아 있어서 ‘목에 있는 부처님’ 이라고 부른다.

이 유골수습은 둘이서 한 조각 되어 대나무와 나무를 조립한 약간 긴 첫가락으로 다리 쪽의 뼈부터 한 조각의 뼈를 주워 유골 항아리에 담으며, 이 노도보토케(喉仏)라는 뼈는 마지막으로 수습되는데, 고인과 가장 혈연이 깊은 사람이 수습한다.³⁴⁾

안드로이드 관음이 세상의 이목을 받기 전 2015년에 등장한 ‘불교를 위한 로봇’ 페파인데 이 로봇이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불교 의례를 위한 인공지능의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가와³⁵⁾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관음이 머신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까지 발전된다면 사람들과의 대화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 외에도 그의 선배 불교 로봇 페파처럼 장의(葬儀)를 도울 수 있는 역할까지 겸비하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34) 김용안. 2009.03.26.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113p.제이앤씨

35) 오사카대학 대학원 기초공학연구과 강사이자 안드로이드 관음을 개발한 공학자. 오가와 코헤이

Ⅲ. 일본에서 안드로이드 관음은 스님으로 대체 될까?

불교는 행선(발보리심)과 계(戒)를 중시하므로 승려의 자리를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

안드로이드 관음은 삼보 중 ‘法’을 담는 그릇으로서, ‘法’으로서의 귀의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성덕(聖德)태자에 의하면 불교의 궁극적 의의를 담고 있는 경전은 <법화경>이고, 그것은 일대승교(一大乘輻)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모든 선행(善行)은 하나로 돌아간다.”고 설했다.³⁶⁾

아울러 불교는 “4생의 종착지이고 만국의 태두(泰斗)이다.”라고 평하면서 불법승 3보 가운데 법보, 곧 불타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시했다.

성덕태자에 의하면 ‘법’이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법도’이고 ‘불’이란 ‘법으로서의 육신’이며, 이것이 ‘진리와 화합하는 것’을 ‘승’이라 한다. 따라서 내용상 ‘법’이란 하나의 원리로 귀일하는 것을 뜻한다. ³⁷⁾

‘법’이 하나의 원리로 귀일하고, 모든 선행(善行) 또한 하나로 돌아간다. 성덕태자는 법보를 가장 중시하며 법보를 수호함에 있어 망설이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성덕태자를 보살로서 숭앙하는 일본불교는 성덕태자의 법을 소중히 하는 정신을 대대로 전승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삼보 중 법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불교는 불교 교리상의 주요 문제(결혼, 육식, 음주 등)와 별개로 폐쇄적인 인륜적 조직의 보호 및 유지라는 관점에서 어떤 변화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율보다 인륜적 조직의 유지를 우선권으로 두었다.

36)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낫선 일본인. 75p
운주사

37)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낫선 일본인. 85p
운주사

물론 계율이 생활을 방해해선 안 되므로 중국의 범망경과 같이 계율을 자신의 몸에 맞게 소매를 자르고 수선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계율을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집착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잘라내 버리는 것이 교주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다.

재가자가 스님에게 귀의하는 까닭은 계를 지키기 때문이다.

스님은 욕망을 좇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존재이고 재가자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포부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존경해 마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계율을 온전히 지키는 편이 아니므로 폐쇄적인 인륜적 조직의 보호 및 유지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안드로이드를 삼보 중 ‘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승’으로서도 섬길 수 있을지 모른다.

안드로이드 관음을 ‘법’ 뿐만 아니라 ‘승’의 역할을 한다고 ‘승려로봇’으로 홍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불교가 얻을 수 있는 손익계산에 플러스가 더 크다면 경전으로 여기는 범주를 넘어 ‘승’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불교에 있어 계율은 명확히 이것이 계율이고 저것은 계율이 아니고 판가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 계율의 우위에 언제나 폐쇄적인 인륜적 조직의 보호 및 유지를 두어왔었고, 일본의 종교사회는 암묵적으로는 불교보다 신도를 우위에 두는 환경에 기인한다.

다만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책에서 “안드로이드 관음은 마음(心)이 없으므로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며 타인과 공감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무정물(無情物)은 마음(心), 즉 불성(佛性)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관음이라는 로봇의 이름을 지을 때 ‘안드로이드 스님’이 아닌 ‘안드로이드 관음’이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책에 따르면 관음보살은 불상이나 불화, 경전과 같이 갖가지 모습으로 모양을 달리하며 화현한다고 소개되어 있고, 그러한 ‘어 저기 관음보살이!’ 라고 불리어지는 대상을 한데 모아 등

글게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는 문화를 일본의 불교문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살려 ‘관음보살’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사료된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관음 안드로이드는 삼보 중 경전으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승려가 존중 받는 것은 ‘계’를 지키기 때문이고 무정(無情)인 안드로이드 로봇은 이겨낼 번뇌가 없으니 지켜야 할 ‘계’도 없다.

불교는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사이의 결정적인 분리를 달리 본다.

왜냐하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유정의 출현은 부처님이 첫 설법에서 가르치신 사성제의 첫 번째 영역에 든다.

사성제는 모든 덧없는(無常)현상들의 영역 안에는 괴로움(苦)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集)이 있고,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고(滅),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것(道)이다.

달라이라마는 과학을 첫 번째 진리의 범주로 보았다. 과학은 괴로움의 물질적 기초를 검사한다. 과학이 ‘답는 그릇’으로서의 물리적 환경의 전체 범위와 ‘담기는 존재’로서의 유정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원인은 정신적 영역(심리적 의식, 고뇌, 그리고 업)속에 든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滅)과 그 길(道)은 과학적 분석의 영역 바깥에 있어서, 주로 철학의 영역에 있다.

과학은 밖의 영역을 담당하여 어떤 것이 괴로운 것인가 논리적인 가르침을 준다. 일종의 무정설법이고 또한 안드로이드 관음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불교와 과학 사이의 이 근본적 차이는(그 구분이 유정과 무정이든 아니면, 생명체와 무생물 사이에 있든) 이 두 가지 탐구의 전통들이 의식을 다루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의식은 이차적 주제인데, 생명 전체라기보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일부에 국한하는 데에 반해 불교에서는 ‘삶’의 정의가 유정을 뜻하기 때

문에, 의식이 곧 ‘삶’의 주된 특징이 된다.³⁸⁾

불교는 이 ‘의식이 삼라만상이 변하지 않는 상(相)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가 하면 마음이 능숙한 화가와 같이 갖가지 오음(五陰)을 그려낸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것[一切]을 ‘색(色),수(水),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이나,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여섯 가지 지각수단과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여섯가지 지각대상의 열두 영역, 즉 십이처(十二處)등으로 구분하셨다. 마치 운전석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주관에서 관찰한 일체의 요소들이다. ³⁹⁾

이와 같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활동세계가 드러나는 것은 유정의 마음의 작용 때문이고 이 마음이 바로 불성, 부처이다.

이처럼 무정과 유정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유정(有情)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共感)을 표시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책에서 밝혔듯이 안드로이드 관음은 괴로움이 없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불가하므로 ‘자비’의 실천은 유정(有情)의 몫이라 하였다.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체가 공(空)하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연기법(緣起法)을 이해해야 하는데, 중생이 받아들이기에 무척 어려운 일이므로 부처님께서도 한때 설법을 고민하셨음을 아래를 통해 알 수 있다.

“ 석존은 보리수 밑에서 대오(大悟)한 다음, 약 한 달 동안 선정(禪定)에 들어 깨달음의 내용을 관찰하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침묵하려고 작정하셨다. 그 이유는 이렇다.

38) 달라이 라마.이해심, 삼목 역. 2007.05.22. 과학과 불교. 43p 하늘북.

39) 김성철. 2018.09.01. 불교와 AI, 인공지능의 용 그림에 불교의 눈 그리기 7p, <불교평론> 75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내가 깨달은 진리는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적정(寂靜)미묘하여서 분별의 세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라야(alaya)를 좋아하고 아라야를 즐기고 있다. 그런 살마들에게는 연기(緣起)의 도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번뇌가 소멸한 열반(涅槃)의 세계도 이해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설법한대도, 나는 오직 지쳐 버릴 뿐이리라.” (律藏 大品)

이때 범천(梵天)의 권유에 따라, 마침내 석존은 설법하고자 산에서 내려오시거니와...⁴⁰⁾

부처님께서서는 왜 연기법을 중생들에게 설법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을까?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에서도 인간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에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인간의 마음은 어떨 땐 괴로워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마음의 작용 덕분에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은 인간이기에 갖추어진 마음(心).. 그러므로 더욱 사람의 괴로움과 아픔을 알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석가모니께서도 열반하시기까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가지고 계셨다.

다만 그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유정(有情)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공감하셨다.

공감(共感)은 마음(心)이 있는 것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드로이드 관음은 불성을 가진 존재, 삼보 중 ‘僧’으로서의 귀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필자는 일본 奈良의 화엄사찰 동대사(東大寺)의 장로(長老)로 계시는 筒井 寬昭⁴¹⁾스님과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40) 다마키 고시로. 이원섭 역.2001.04.20. 화엄경(華嚴經).11p 현암사

41) 동대사 장로(東大寺長老), 동대사 이월당 원주(東大寺二月堂院主)

‘안드로이드 관음이 중생의 모든 고민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스님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부처님께선 각 개인에게 맞는 답안을 내려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안고 있는 문제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번민의 깊이가 없는 승려도, 중생도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번민도, 불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생의 괴로움도 주어지기 어려운 시대인지라..“

대답과 함께 이어져 나오는 筒井 寬昭스님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생에 대한 풍부한 통감(痛感)능력은 다양한 감정표현과 그것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표정을 갖게 만드는데, 점점 이러한 번민하는 듯한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줄었고, 번뇌하는 승려의 상(相) 또한 점점 없어지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상인(上人), 괴로워하는 상인, 연민하는 상인의 얼굴을 奈良의 약사사(藥師寺)를 가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일체의 무상함을 통감하고 괴로워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는 듯한 얼굴이나 일본의 정토종 사찰에 모셔진 상인(上人)들 특유의 온화한 상을 가진 사람을 현대인에게서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奈良의 후쿠치인(福智院)에 전시된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흥정보살(興正菩薩)은 나한의 눈썹(羅漢眉)모양을 갖추고 이마가 동산같이 나와 눈썹과 산(山)을 이루듯이 조각되어 있어 지혜로워 보이고 언뜻 보면 귀엽다. 이마와 눈썹이 흐릿하게 습, 谷 한자를 그린다.

재밌는 것은 흥정보살(興正菩薩)의 옆얼굴은 눈썹이 턱수염처럼 한참 늘어져 있어 八字를 그리는 것이다. 언뜻 보면 사앵나무 가지처럼 축 늘어뜨려진 눈썹인데 나라근철역(奈良近鐵驛) 분수대 앞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와 시주함을 들

고 서 있는 일련종(一蓮宗)의 승려의 얼굴도 눈썹만큼은 이렇게 생겼다.

한국에서도 눈썹이 나한미(羅漢眉)이면 스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일본 또한 승려 얼굴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연민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일체의 무상함을 통감하는 상인(上人)들의 얼굴은 마치 목의 핏대를 세우고 얼굴의 세밀한 근육 하나하나를 일으킨 듯이 풍부한 얼굴의 근육활동을 보여준다. 마치 사지에 물린 사람이 최대한의 근육활동을 발휘하는 것처럼 얼굴근육과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긴장감이 팽팽하다.

폭풍우가 이는 바다가 비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요동치는 물결을 달리하듯이 분노, 무력감, 슬픔, 기쁨과 같은 번뇌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 요동치는 얼굴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과 그 근육이 남기고 간 길(道), 주름의 모양새가 다르다. 요약하자면 상인(上人)들은 다양한 중생을 만나고 그 고통에 통감하는 관계로 삶의 굴곡이 깊고 자연스럽게 감정표현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다.

지금의 불자와 스님들이 약사사(藥師寺), 연력사(延曆寺)에 모셔진 상인(上人)들이 짓고 있는 다양한 표정을 따라 해 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몇 가지의 표정을 흉내 낼 수 있을까?

중생에 대한 풍부한 통감(痛感)능력이 다양한 감정표현과 그것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표정을 갖게 만든다.

다양한 표정이 없는 것은 굴곡 없는 삶이다. 이를 삶이 무미건조하고, 괴로움에도 별 무감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굴운동이 활발하거나 흥미로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불자, 스님을 찾기 어려운 세상은 살아가기 참으로 딱한(あわれ)세상이라고 했다.

둘째로 마치 약사가 환자의 증상에 가장 들을 법한 약을 권하듯 부처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사정과 근기를 판단하고 알맞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설교와 원전의 내용이 AI에 다양하게 탑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의 근기를 알아보고 적절한 답을 내어 주는 일은

인공지능의 학습능력과 무관하다.

상대의 관심사를 추려내어 원하는 답을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상대가 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답을 상대방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딱한 사정을 ‘공감’하여 적절한 응대를 하는 일은 마음(心)이 없는 안드로이드 관음에게 불가능 일이므로 스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세 번째로 선종 경전과 같은 은유나 비유, 이성으로 분별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려운 선어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에 학습시킬지 아직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 외에도 경전의 심오한 내용을 어떻게 부드러운 현대말로 풀이하여 알기 쉽게 설교하도록 학습시키느냐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화엄경의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含十方)은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다.’라는 경전 어구인데,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도 정도껏 납득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경전내용을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나 초심자가 ‘안드로이드 관음’과 같은 로봇을 통해 접근했을 때 자칫 불교는 합리적이지 못한 종교라는 편견을 심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전의 해설이나 어구 속 단어는 그 의미가 표준화되어 저장되면 기계 설법 기능의 수고를 더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불교 경전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표준화 되어 있는 불교용례나 사전이 반드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⁴²⁾

또한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⁴³⁾

고 하셨다.

前佛後佛 只傳此心 除此心外 無佛可得, 앞의 부처님이나 뒤의 부처님이나 단지가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는 부처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안드로이드 관음이 발전하고, 불교 경전을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그릇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좋은 책과 기술도 응용하기 어렵다.

“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그릇이 작으면 빗물은 적게 담기고 그릇이 크면 많이 담기듯이 우리들 인생이 본래로 부처님이나 보살들과 같은 지혜와 자비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가 어떤 안목의 그릇을 가졌는가에 따라 삶의 질과 양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그릇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 예컨대 하늘에서는 환희의 보배 비가 폭우가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 자신의 인생 그릇이 기울어져 있거나 덮어져 있다면 그 삶이 어떻겠는가.44) ”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관음과 같은 불교 로봇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AI강국에서 개발되는 시대에 불자는 어떤 태도로 21세기를 살아가야 할까?

[습유집]의 [애상]에 교키(行基)가 남긴 [떨나무 찬불가]가 있다.

“나는 떨나무를 모으고 나물을 캐고
물을 길러 범화경을 터득했느니라“

42) 디가 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 숫탄파]2.26

43) 디가 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 숫탄파]6.7

44) 설잡스님 찬撰. 무비스님 강설. 2018,10.15.무비스님이 풀어 쓴 김시습의 범성계 선해,159p. 담앤박스,

그는 대법회 때 이 노래를 읊으며, 장작을 메고 물통과 헌상물을 들고 당과 연못 주위를 돌며 장작 행도를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무열매를 따고 물을 길고 장작을 쭈는 고생을 하며 제바(提婆)의 시중을 들어 범화경을 가르침을 얻었다.

가르침을 체화한다는 것은 이처럼 오직 지극한 성실함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불자는 DB나 각종 불교경전사이트, 미래에는 안드로이드 관음과 같은 경전 로봇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

가르침의 습득은 [빨나무 찬불가]에서 본 것과 같이 선행(善行)을 하고 몸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

빨나무를 모으고 나물을 캐고 물을 길러 범화경을 터득했다는 찬불가의 내용과 같이 체험이 있어야 한다.

'법'이 하나의 원리로 귀일하고, 모든 선행(善行) 또한 하나로 돌아간다는 성덕태자의 전언처럼 가르침을 읽고 듣는 과정에서 선행이 함께 이루어 질 때 가르침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습득과정은 안드로이드 관음과 같은 로봇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루트이기도 하다. 중생 각자가 자신이 가진 근기로 자신만의 루트를 가지고 가르침을 습득하는 여정에 오르기 때문이다.

IV. 일본 불교의 지속가능성은 ‘다정(多情)함’에 있다

1.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한국 불교인구의 고령화 둘러보기

아기는 노인과 가장 많이 공통점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아기는 육근이 덜 발달한 관계로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의 한계가 있고 노인은 노쇠한 관계로 육근의 감각이 무뎌져 수입할 수 있는 정보양이 점점 줄어들고 정보를 다루는 뇌의 회전속도가 느리다.

그 외에도 민머리에 이빨 개수가 적거나 없는 상태, 팔다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신체 내부의 장기가 불균형하며 뼈가 약한 상태를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자신의 의지를 이루어 내는 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희생과 사랑을 소원하는 존재를 아기와 노인으로 볼 수 있다.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가 쓴 ‘파리의 우울 (Le Spleen de Paris)’ 중 ‘노파의 절망’ 편에서 위에서 기술한 노인의 단면을 보여준다.

“쭈글쭈글한 노파는 누구나 좋아하고 환심을 사려 하는 이 귀여운 어린애를 보자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노파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그녀처럼 이(爾)도 머리털도 없는 이 귀여운 것을.

그래서 노파는 아이에게 다가가 웃어주며 좋은 얼굴 표정을 해 보이려 했다.

그러나 아이는 이 늙어빠진 착한 여인이 어루만져 주는 데 겁이 나 발버둥 치며 집 안이 떠들썩하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착한 노파는 다시 그녀의 영원한 고독 속으로 물러나, 한쪽 구석에서 울며 중얼거렸다.

‘아! 우리 불행한 노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어린것들조차 좋아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어린것들은 무서워하는구나!’ ”

아기는 보이는 모습이 귀엽고 성장을 위한 투자가 유의미한 결실을 맺으리라 예견되므로 노인과 공유하는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반면 노인은 생로병사의 민낯이 드러난 존재라서 어쩐지 오래 얼굴을 맞대기 거북하다.

그들의 몸은 노쇠해있고 합병증은 예삿일이라 보살핌이 까다로우며 연장자 대우에 대한 부담도 크다. 고로 대부분의 노인이 가정 내에서 가장 상전의 존재일 지라도 존재감은 벽장시계보다 열은 존재로 묘한 아이러니를 이룬다, 대부분의 노인은 가정 내에서 몇 마디 스물 톱을 나누는 정도의 존재감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해지는 육신과 달리 일평생에 걸쳐 정신적으로 성장하다가 죽음을 맞는다. 아기도 노인도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조건을 공유하지만, 성장조건은 상이하다.

아기에게는 생산성이 기대되는 성장이 있다면, 노인에게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몸의 각 부분이 노쇠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병을 최대한 예방하는 ‘메우기 작업’의 성장만이 남아있다.

서론이 길었지만 불교 내의 노령화 문제도 이와 같다.

절에 젊은 피가 돈다면 가르침의 씨앗을 심는 일에 손이 부지런해지고 이들의 성장을 통해 불법(佛法)의 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 중심으로 중단이 돌아가면 반드시 그 종교는 융성하게 되어 있는 것에 반면하여 압도적인 비율의 중장년층 불자는 상기에 밝힌 ‘노인’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들은 노쇠함에 따라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 내가는 방식을 가지므로 융성보다는 유지를 보수하는 방향이다.

종교의 흥망성쇠는 신자의 신심(信心)이 문화에 행사하는 과급력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젊은 불자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불교 인구 노령화는 불교 내부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低 出産)문제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일본과 한국의 인구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나라의 종교의 흥망성쇠는 먼저 분파를 떠나서 인구 그 자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인구는 2010년 1억 2,806만인이나 2115년에 5,056만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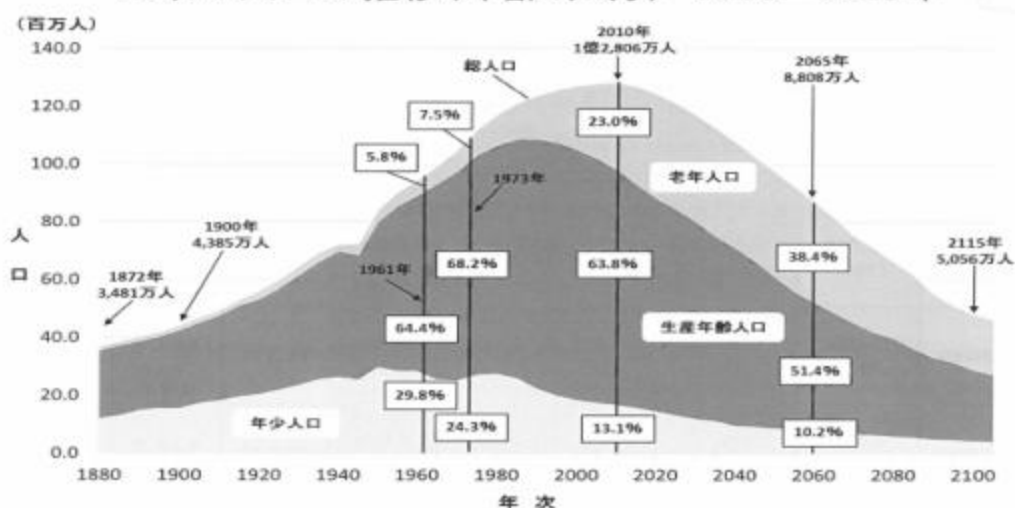
이것은 현(現) 일본 인구의 반 토막 보다 떨어져 나간 숫자이다.

2010년의 인구조사 기준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 수가 70,000인에서 100,000인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 공개한 통계이지만 실제로는 530,000인으로 추산된다.⁴⁵⁾

45) 이것은 현재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교수이자 후생노동성의 보건국 보건과장으로 있었던

시마자키 겐지(島崎謙治)가 밝혔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人口問題研究所 사이트에 접속해보아도 좋다. 일본의 인구통계에 대해 알기 쉽게 분석한 학자로 시마자키 겐지(島崎謙治)와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를 꼽을 수 있는데 후자의 학자는 일본종합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한국에 그의 책이 번역된 것이 있다. <숲에서 자본주의를 꺾는다><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라는 책인데 그것이 일본의 인구문제를 주안점으로 다루지 않지만 대강의 일본 인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日本の人口の推移(年齢3区分) 1880-2115年



(出典)「国勢調査」、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2017年推計)」

将来人口の基本指標

年	総人口(A) (万人)	人口3区分				高齢化率 (D/A)	老年人口の 生産年齢人口 に対する割合 (D/C)	(参考) 生産年齢人口 を20~69歳、 老年人口を70 歳以上とした 場合の老年人口 の生産年齢 人口の割合
		年少 人口(B) (15歳未満) (万人)	生産年齢 人口(C) (15~64歳) (万人)	老年 人口(D) (65歳以上) (万人)	(参考) 再掲 (75歳以上) (万人)			
2015	12,709 (100)	1,595 (100)	7,728 (100)	3,387 (100)	1,632 (100)	26.6%	2.3人で 1人を 支える	3.4人で 1人を 支える
2040	11,092 (87)	1,194 (75)	5,978 (77)	3,921 (116)	2,239 (137)	35.3%	1.5人で 1人を 支える	2.1人で 1人を 支える
2065	8,808 (69)	898 (56)	4,529 (59)	3,381 (100)	2,248 (138)	38.4%	1.3人で 1人を 支える	1.7人で 1人を 支える

(注) 括弧内は2015年を100とした場合の割合。

(出典)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2017年推計)」(出生中位・死亡中位の場合)

출처:시마자키 겐지(島崎謙治) 46)교수 제공

위 도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숫자 하나(1)가 일만 인(一萬人)이라는 기준에서 2015년 총인구는 12,709,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는 1,595, 생산연령인 15세에서 64세는 7,728, 노년층인 65세 이상은 3,387, 재계(再掲)층의 75세 이상은 1,632로 고령화 비율이 26.6%이며 노년인구의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율이 2.3人中 1인에 달한다. 2015년 기준에서 생산연령인구를 20~69세, 노년인구를 70세 이상으로 가정했을 때 노년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3.4人中 1인에 달한다.

숫자 하나(1)가 일만 인(一萬人)이라는 기준에서 2040년 총인구는 11,092,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는 1,194, 생산연령인 15세에서 64세는 5,978, 노년층인 65세 이상은 3,921, 재계(再掲)층의 75세 이상은 2,239로 고령화 비율이 35.3%이며 노년인구의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율이 1.5人中 1인에 달한다. 2040년 기준에서 생산연령인구를 20~69세, 노년인구를 70세 이상으로 가정했을 때 노년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1人中 1인에 달한다.

숫자 하나(1)가 일만 인(一萬人)이라는 기준에서 2065년 총인구는 8,808,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는 898, 생산연령인 15세에서 64세는 4,529, 노년층인 65세 이상은 3,381, 재계(再掲)층의 75세 이상은 2,248로 고령화 비율이 38.4%이며 노년인구의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율이 1.3人中 1인에 달한다. 2065년 기준에서 생산연령인구를 20~69세, 노년인구를 70세 이상으로 가정했을 때 노년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1.7人中 1인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1)가 일만 인(一萬人)이라는 기준에서 2115년 총인구는 5,056이며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노년인구 쪽에 기울어져 있었

46) 일본 후생노동성 보건국 보건과장,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부소장, 도쿄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부속 비교법정국제센터 객원교수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정책연구 대학원대학 교수로 현직. 나가노 현립병원기구 이사, 일본병원 의료관리학회 평의원,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 위원.

던 생산연령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율이 중심을 잡고 안정기에 들어선다. 2010년의 인구와 비교했을 때 2115년의 인구는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많고 특히 3-40대들의 활성화가 눈에 띄는 모양이다.

이러한 관계로 2040년의 일본은 인구고령화의 피크를 맞는다.

더하여 불교의 참 교리를 교육받은 사람이 해를 거듭하며 적어지고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스님이 아이를 낳아 불교를 교육시켜 승려의 일을 천직(天職)으로 삼지 않는 이상, 다양한 직업 진출이 허락된 시대에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이 어렵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승단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대처승 제도가 활성화를 떨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승려가 되어야만 하는가? 왜 승려만 불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 의무를 지는가? 승려를 도와줄 불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치열한 궁리 또한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약하면 일본에서는 젊은 불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궁리와 함께 사찰에 참배하러 오는 중장년층과 노인을 위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기획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음으로 한국 불교 인구의 통계를 보겠다.

2008년에 발행된 한국불교총람에 따르면 조계종신도 수가 11,084,460명으로 2004년 통계치인 15,131,206명보다 약 4백만 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당시 총람상 1천만 명이 넘는 신도수를 자랑하는 조계종의 정식 신도 수는 40여만 명에 불과했다.⁴⁷⁾

47) 이범수. (2013). 한국의 노인 자살과 불교계 대처 방안 -2025년 불교인구 동향 예측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 66(0), 351-386 중 364p

행정구역	2005					
	계(%)	종교 있음(%)	종교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서울특별시	9,762,546(100)	5,335,896(54.66)	4,369,245(44.75)	1,642,667(16.82)	2,222,831(22.76)	1,382,264(14.15)
부산광역시	3,512,547(100)	2,043,772(58.18)	1,453,045(41.36)	1,378,384(39.24)	364,592(10.37)	261,410(7.44)
대구광역시	2,456,016(100)	1,337,542(54.45)	1,113,964(45.35)	821,042(33.42)	255,593(10.4)	240,230(9.78)
인천광역시	2,517,680(100)	1,277,726(50.75)	1,226,085(48.69)	348,361(13.83)	563,433(22.37)	345,843(13.73)
광주광역시	1,413,644(100)	679,874(48.09)	731,497(51.74)	203,429(14.39)	278,884(19.72)	183,787(13.0)
대전광역시	1,438,551(100)	774,420(53.83)	659,314(45.83)	314,286(21.84)	295,330(20.52)	153,867(10.69)
울산광역시	1,044,934(100)	592,312(56.68)	450,170(43.08)	415,726(39.78)	99,571(9.52)	66,991(6.41)
경기도	10,341,006(100)	5,368,081(51.91)	4,908,658(47.46)	1,741,401(16.83)	2,260,594(21.86)	1,286,104(12.43)
강원도	1,460,770(100)	708,040(48.47)	747,578(51.17)	336,293(23.02)	227,437(15.56)	132,936(9.1)
충청북도	1,453,872(100)	716,889(49.3)	733,465(50.44)	345,972(23.79)	219,742(15.11)	143,284(9.85)
충청남도	1,879,417(100)	941,711(50.1)	932,764(49.63)	386,082(20.54)	367,536(19.55)	171,586(9.12)
전라북도	1,778,879(100)	951,153(53.46)	822,982(46.26)	227,364(12.78)	467,454(26.27)	202,959(11.4)
전라남도	1,815,174(100)	884,063(48.7)	925,595(50.99)	292,747(16.12)	396,183(21.86)	157,333(8.66)
경상북도	2,594,719(100)	1,389,984(53.56)	1,198,586(46.19)	878,509(33.85)	299,636(11.54)	184,100(7.09)
경상남도	3,040,993(100)	1,337,787(43.99)	1,696,753(55.79)	1,220,542(40.13)	259,439(8.53)	178,689(5.87)
제주특별자치도	530,686(100)	272,590(51.36)	254,425(47.94)	173,658(32.72)	38,183(7.19)	54,764(10.31)

출처: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48)

48) 장형철. (2018).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 - 연령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2(1), 181-219 중 204p

행정구역	2015					
	계(%)	종교 있음(%)	종교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서울특별시	9,444,796(100)	4,386,827(46.44)	5,057,969(53.55)	1,023,721(10.83)	2,286,305(24.2)	1,012,892(10.72)
부산광역시	3,359,946(100)	1,574,615(46.86)	1,785,331(53.13)	958,683(28.53)	407,659(12.13)	180,815(5.38)
대구광역시	2,402,746(100)	1,061,583(44.18)	1,341,163(55.81)	571,511(23.78)	288,540(12.0)	185,546(7.72)
인천광역시	2,783,565(100)	1,170,740(42.05)	1,612,825(57.94)	244,467(8.78)	642,515(23.08)	265,369(9.53)
광주광역시	1,461,127(100)	569,103(38.94)	892,024(61.05)	139,030(9.51)	292,140(19.99)	126,284(8.64)
대전광역시	1,499,520(100)	657,379(43.83)	842,141(56.16)	209,450(13.96)	327,421(21.83)	110,724(7.38)
울산광역시	1,120,525(100)	510,345(45.54)	610,180(54.45)	333,441(29.75)	122,159(10.9)	47,448(4.23)
세종특별자치시	197,651(100)	83,373(42.18)	114,278(57.81)	27,374(13.84)	39,328(19.89)	15,528(7.85)
경기도	11,869,038(100)	5,140,688(43.31)	6,728,350(56.68)	1,267,172(10.67)	2,729,767(22.99)	1,065,430(8.97)
강원도	1,475,324(100)	609,373(41.3)	865,951(58.69)	242,579(16.44)	258,660(17.53)	98,521(6.67)
충청북도	1,528,981(100)	611,888(40.01)	917,093(59.98)	250,007(16.35)	241,747(15.81)	112,512(7.35)
충청남도	2,012,492(100)	832,092(41.34)	1,180,400(58.65)	277,823(13.8)	416,916(20.71)	124,602(6.19)
전라북도	1,782,291(100)	802,240(45.01)	980,051(54.98)	152,742(8.56)	480,150(26.94)	132,948(7.45)
전라남도	1,741,499(100)	708,931(40.7)	1,032,568(59.29)	189,332(10.87)	404,287(23.21)	97,533(5.6)
경상북도	2,590,042(100)	1,154,305(44.56)	1,435,737(55.43)	654,091(25.25)	345,238(13.32)	135,299(5.22)
경상남도	3,200,207(100)	1,435,772(44.86)	1,764,435(55.13)	941,750(29.42)	334,671(10.45)	132,817(4.15)
제주특별자치도	582,639(100)	244,420(41.95)	338,219(58.04)	136,159(23.36)	58,258(9.99)	46,043(7.9)

출처: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49)

위의 통계에 따르면 불교 인구는 2005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모든 시와 도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강세를 보이던 부산과 울산에서 불교 인구는 10% 이상 감소하였고 대구에서도 9.64% 감소하였고 경상남도과 제주도에서도 각각 10.72%와 9.36% 감소하였다. 행정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 인구의 감소는 이러한 강세지역에서의 뚜렷한 감소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5년 조사 당시 45세 이상의 한국전체 인구15,288,705명은 2015년 65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진입한다. 이 중 2005년 당시 45세 이상의 불교도는

49) 장형철. (2018).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 - 연령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2(1), 181-219 중201-202p

4,788,499명이 된다.

2005년부터 2025년 사이의 평균 사망률 507명 을 20년간 적용하여 485,553명을 제외시킨다 해도 여전히 4,302,946이라는 숫자의 65세 이상의 불교도가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국에서는 2025년 한국 전체 인구 예상치를 51,972,263명으로 본다.

여기에 2005년 종교인구센서스 중 22.8% 인 불교인구 비율 치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2025년 불교인구의 예상치는 11,849,675명이다. 이 불교인구 예상치로 2025년 65세 이상 생존 예상 불교인구 숫자인 4,302,946을 나누어 보면 2025년 경 65세 이상 불교인구 중 36.3%가 노인 불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온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 한 2025년 고령인구 예상치 29.4%보다 무려 7%정도 높은 수치로 장차 불교계는 2025년 한국사회가 겪을 고령화 사회보다 더욱 심각한 고령화를 직면하게 될 것이 전망된다. 50)

한국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타 종교계 집단들도 한국의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신자(信者)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불교는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 급속도로 불자가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불교 내에서의 불자 이탈도 큰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미리 밝혀두지만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나 감소문제와 관계없이 일본인의 대부분은 일평생 절에 발길을 끊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불자 이탈’이라는 문제가 모호하다.

절이나 신사에 가서 손을 모으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고 이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어 본의 아니게 ‘불교와 신사를 즐기는 취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은 참배가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마저 절이나 신사에 참배한다.

50) 이범수. (2013). 한국의 노인 자살과 불교계 대처 방안 -2025년 불교인구 동향 예측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 66(0), 351-386 중 364p

이것이 일본의 불교신도 수가 흐리게 파악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불교나 가톨릭이나 그 인구를 조사하고 일본의 불자인구와 한국의 불자인구를 비교하는 것도 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일본 문화청(文化廳)에서는 매년 종교연감(宗教年監)⁵¹⁾을 발행하여 각3부로 내용을 구성하여 일본의 종교현황을 공개한다.

일부(1部)는 [일본의 종교의 개요], 제 2부(第2部)는 [종교통계], 제 3부(第3部)는 [종교재단일람]으로 구성되며 문부과학성대신의 관할의 종교법인(文部科學大臣所轄の宗教法人) 등을 소개한다.

종교연감을 발행하여 일본 전국에 산재한 종단의 정보와 신도 수를 공개하지만 실상 일본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종교이든 편견 없이 다 합장하는 다신교적 문화가 지배적인 관계로 음 진리교와 같은 테리종교집단과 같은 특이한 사명감을 가진 신자들을 예외로 두고, 종교적 사명감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두는 경우(금식, 매일 일정 시간대에 기도 등)가 극히 드물다.

일본 국민 전체는 신사와 관계를 맺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며 신불을 숭상한다.

평생 ‘참배하는 삶’을 사는 일본인을 보며 신불습합이나 제국시대의 어두운 모습은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면 참배라는 관습은 일본인에게서 도저히 빼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불자 수가 줄어든다, 늘어난다와 같은 명확한 수치를 짚 수 있는 불자 인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본인의 참배의 관습을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더욱이 참배문화를 부흥시킨 원동력은 따로 있다. 그것은 ‘정(情)’이다.

무정(無情)이든 유정(有情)이든 합장하는 문화는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 자

51) 일본 문화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종교연감을 pdf파일로 저장하여 볼 수 있다.
http://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hakusho_nenjihokokusho/shukyo_nenkan/index.html

연에 대한 경이를 통해 인간의 작음과 미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나약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정(情)을 가지고 대하는 문화, 인연을 소중히 하는 문화를 탄생시켰다.

절이든 신사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초목이든 내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계속 보아 오며 자라난 것이다. 이미 갓난쟁이일 때부터 알게 모르게 인연이 닿아있는 것이고, 이 인연을 보존한다는 개념이 강하다.

일본인은 인연은 연기(緣起)함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불자로서 받아들여도, 그런 연기(緣起)의 신비로 나에게 다가온 존재(일체一切의 유정과 무정, 다양한 종교 포함)의 무상(無常)함을 깨우치기 보다는 나에게 걸려 있는 업을 소중히 하고 무덤에 들기 전까지 자신에게 엮인 인연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성향이 있다.

무정(無情)한 것이든 유정(有情)한 것이든 무상(無常)함은 똑 같다. 유정(有情)의 처지인 사람과 무정(無情)의 처지인 돌 두 종류는 결국 무상(無常)한 형편이니, 무정물은 무상(無常)을 알아차리는 마음(心)이 없을지라도 유정(有情)은 마음(心)이 있어 일체의 무상(無常)함을 안다. 이 연기(緣起)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침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오늘 저녁까지 볼 수 없는 사실에 웬지 분하면서도 애뜻한 감정을 느낀다. 이것이 유정(有情)의 존재가 무정(無情)의 존재에 다정(多情)함을 품는 일이다.

“IV. 일본 불교의 지속가능성은 ‘다정함’에 있다”에서는 일본의 ‘참배문화의 근간’이자 현대에 이르러 ‘참배’를 일종의 유행으로 만들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불교를 부흥시키도록 이끈 것을 ‘정(情)’으로 꼽고, 이 ‘정(情)’의 갖가지 모습을 소개할 것이다.

2. 일본 여성은 왜 절에 가는가?

겉으로 드러내어 차별하지 않지만, 일본 불교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불에 대한 구별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로후쵸, 아카후쵸와 같이 남자가 지을 수 없는 죄⁵²⁾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미개한 사상의 등장과 함께 나가레칸조 습속⁵³⁾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일본 불교 속 여성은 남자가 가질 수 없는 ‘케가레(더러움)의 벽’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관계로 ‘자발적 귀의’ 보다 ‘부처님이 소매를 당겨줘서 겨우 구제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다.

아래의 ‘타테야마 만다라立山曼荼羅’에 그려진 피웅덩이 지옥이 여성들만 들어가는 지옥(血の池地獄)이다. 이 여성들을 여의륜관음(如意輪觀)이 구제해주고 있다. .

52) 시로후쵸는 출산할 때 흘리는 피가 부정하다는 뜻이고 아카후쵸는 월경으로 흘리는 피가

부정하다는 뜻이다. 이같이 부정한 피를 흘리는 죄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 연못에 빠져 고통을 겪는다. 여성들만이 들어가는 지옥이라 여탕지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여성의 ‘부정 출혈’에 대한 인식은 불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인식으로, 예를 들어 스모(神의 경기) 경기장 모래 위를 여성이 기어 올라갈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여자가 신성한 스모 경기장을 불결함으로 더럽힐까봐 우려한 것에 연유한다.

53) 나가레칸조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리 밑이나 물가에 네 개의 막대기를 세운 다음,

경문을 써 넣은 형곶조각을 매다는데 곁에 물통을 놓는다. 지나가는 사람이 형곶이나 나무에 물을 부어 주면 서서히 경문이 바래지는데, 이 형곶조각의 색깔이나 경문 글자의 색이 바래면 비로소 죽은 임산부의 영혼이 저승에 갔다고 믿는다. 물을 붓는 것은 망자가 저승길에 火山을 넘어가야 하니 그 때 뜨겁지 않도록 적셔준다는 의미와 함께 부정한 출혈을 정갈히 한다는 심의가 깔려 있다.

圖像分節・名付圖



立山曼荼羅 大仙坊本(天竺坊藏)



출처: 綜覽 立山曼荼羅. 코마자와대학도서관(駒澤大學圖書館)제공

성덕태자가 세속의 도덕률을 불교의 입문으로 이해하여 <법화의소(法華義疏)>를 쓰고 불교를 바탕으로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 으뜸으로 꼽은 경전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을 가장 의지하는 문화는 나라시대로부터 지금의 일본에 이어져 내려왔으므로, 법화경 내의 여인오장설 또한 일본 나름의 사유체계로 소화되었고 그로 인해 빚어진 습속이 나가레칸조 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불교 의례가 많다는 것을 일본 여성들은 숙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는 절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일까?

첫째, 불교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스님들이 여자의 삶에 대한 공부를 오래 하였기 때문이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은 삶의 괴로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진다.

아울러 자신이 경험한 괴로움 외에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여성의 괴로움에 대해서 비구는 더욱 불가사의하게 여겼다. 스님의 여자의 삶에 대한 성찰이 깊으므로 여성 불자의 괴로움에 공감할 줄 아는 그릇을 갖추고 있다. 여성 불자가 스님에게 말을 걸거나, 스님이 여성 불자에게 말을 걸고 화목하게 대화하는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다.

이러한 대화의 부드러움을 이끄는 요소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모든 생명과 무정물마저 부처라는 관념이 있고, 언어체계마저 御水와 같이 무정물에 사람이나 스님에게 붙이는 겸양어를 평등하게 붙이는 문화가 있고, 일본인의 현상계 그대로를 절대 세계로 인정하는 경향⁵⁴⁾은 깨달음이 저 너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스님도 구름 너머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나가레칸조’ 의례로 돌아가서, 나가레칸조를 치르기 위해서 스님은 남성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복잡한 이벤트⁵⁵⁾를 이해하고 마음 깊이 통감하며

54)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21p 운주사

55) - 목숨을 건 출산, 월경(부정 출혈이 일어나므로 5일간 외부인, 가족과의 대화나

진심으로 성불을 빌어줘야 했다.

이 ‘나가레칸조’ 의례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스님들의 여성의 삶에 대한 성찰의 역사도 길었다. 일본은 ‘나가레칸조’와 같이 미개한 불교문화를 양산한 업보가 있지만 이 ‘나가레칸조’를 계기로 스님이 여성의 삶의 순환에 대해 치밀하게 고민하는 태도는 훌륭하다. ‘

이 ‘나가레칸조’를 절대적인 불교적 의례로 생각하고 여성은 부정 출혈하는 불결한 존재라는 혐오, 기피해야 할 존재로서만 인식했다면 절대로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불교의 여성에 대한 성찰은 하루 아침에 쌓은 것이 아니다.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스님이 여성만이 겪은 이벤트와 괴로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둘째로, 불교문학을 통한 여성 불자의 참여율이 높았고, 대승불교 이전에는 화려하면서 다정한 아취가 있는 귀족불교라는 인식이 강해 예부터 귀한 집안 여성의 교양으로서 필수적이었다. 지금도 일본에선 대승불교와 별개로 귀족적인 불교- 특히 밀교, 진언 쪽과 가문 소속의 절-가 명맥을 잇고 있다. 일본 여성이 남긴 문학작품(일기, 와카-和歌-, 궁중문학)에는 당시 일본의 불교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고, 수많은 여성들이 작성한 문학작품이 지금까지 전승되어오고 있으므로 여성이 다작(多作)한 나라라 볼 수 있다.

불교 문학이자 궁정문학인 겐지모노가타리(原氏物語)를 예로 들자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들이 대체로 이른 나이에 죽거나 절에 출가하므로 출가모노가타리라고도 한다.

이 작품은 학력고사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라도 이를 공부

접촉도 일절 없이 집 밖의 별관에 갇힌다. 말을 하면 부정이 옴으므로 5일간 침묵해야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 아내가 죽으면 그 유골을 처가에 그대로 돌려보내고 연을 끊는 습속, 생활고로 인해 태어난 아기를 그 자리에 죽게 하는 마비키(間引き), 유산(水子) 등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곧 불교문화를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수능을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쓴 불교문학 작품은 아어(雅語)의 사용과 운율감이 매우 훌륭해서 현대의 여성들이 말씨를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받을 때 교본으로 사용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도부(茶道部)가 없는 학교가 없고, 다도는 유과에 따라 교본이 나뉘지만 대부분 간단한 선어(禪語)나 와카(和歌)를 학습한다.

전자의 경우엔 센노리큐의 차노유 정신과 불교의 ‘공’사상이 들어있고 후자의 경우 서방정도에 대한 상상(想像) 혹은 계절별 정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많다.

차를 배우는 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접할 수 있으니 곧 어릴 때부터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기 어려우나, 일본에서는 불교에 대한 지식에 얽은 여자는 필수적인 교양 교육을 못 받을 정도로 가문의 수준이 낮거나 빈곤한 여자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는 여성은 일본 사회에서 체면이 높다.

미다시나미(身嗜み), 여성력(女性力)을 중시하는 일본 여성은 남에게 교양 없는 여자로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레키쥬(歴女. 절, 신사, 유적지를 떠돌며 공부하는 교양 있는 여자)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원인이자 일본 여성이 불교 공부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어서 귀족적인 불교가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어느 집이든 불단을 만들어 놓는 문화와 가문마다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절에 막대한 시주 혹은 절을 재건하고 증축하는 불사를 하는 문화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불사는 일본의 폐쇄적인 인륜적 조직의 보호와 유지를 중시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계율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대처승 - 자신이 속한 인륜적 조직의 이해(利害)문

제에 관해서는 보다 현신적인 것이 사찰을 비롯해 일본인의 보편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인데⁵⁶⁾,

인륜적 조직의 이해문제는 곧 조직을 유지시키는 자금의 행방과 연결되므로 일본의 경제와 사회를 알려면 불교와 신도(神道)의 경제활동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고대로부터 일본에서 여성은 종교적 행위에 있어 타고난 존재이다.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나 고지기(古事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여성의 성별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태양과 생명의 기원, 땅의 상징은 여성이다.

특히 ‘땅’의 상징으로서 여성을 보았을 때, 일본이 고대로부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정량 이상의 영력(靈力)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땅은 영혼이 되돌아가는 ‘산(山)’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에선 ‘땅이 솟아 오른 곳’을 ‘산(山)’ 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산으로 돌아가 일정 기간을 지내고 환생한다.

산(山)이라는 공간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큰 통과의례를 동시에 집행하는 곳이다. 이 일본의 산악신앙에 불교가 섞인 후로는 산의 정상은 극락 정도, 산의 하부(下部)부터 지하까지는 지옥으로 보는 만다라가 등장하는데, 이 ‘山’을 구성하는 것은 흙, 즉 ‘땅’이다,

이 땅은 여성이고, 땅이 올라선 곳(山)에 살아가는 영혼을 부르려면 여성 무녀(巫女)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유타(ユタ)나 이다코(イタコ)⁵⁷⁾가 탄생했다.

7C 후반에 이세 신궁에 미혼의 왕녀(王女)를 보내 신녀(神女)로서 봉사하게 하

56)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63-64p 운주사
57) 맹인의 여성 무녀 집단을 이른다. 활시위를 튕겨 활시위가 내는 음색과 흔들림을 보고 점을 친다. 유타와 이다코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으로 존재 이래로 남성 구성원이 있었던 역사가 없다.

였고, 에도성(江戸城)의 오오쿠(大奥)- 여성들만 생활하는 거처- 이 쇼군이 집정하는 곳을 보호하고 명운을 기도하는 신전의 역할을 수행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의 기도행위는 일본 고유의 문화로 자리 잡혀있다.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절에 발길을 끊는 것이야말로 일본 여성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은 도저히 일본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넷째로, 여성의 인생에 있어 큰 통과의례는 신사 아니면 절에서 이뤄진다.

임신 기원, 안산(安産)기도, 아이가 태어난 지 30일 되었을 때 신사에 감사인사(初宮參り)를 한 후 얼마 있어 절에 찾아가 스님께 아이의 탄생을 알리고 아이의 밝은 장래를 축원하는 일, 수자(水子)의례 등.. 이 의례들을 대하는 스님과 신관은 타인 가족의 대소사를 본인 가족의 일처럼 소중히 다룬다는 것이다.

아이를 임신하고 안산기도를 하는 행위로부터 출산하여 새 생명을 데려오는 과정까지 수개월에 걸쳐 담당 신관과 스님의 축원이 함께한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과정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비록 그들이 몸으로 새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낳은 것과 같다.

새 생명을 환영하는 모습에서 물레처럼 돌아가는 생명의 순환을 경이롭게 여기는 종교인의 태도를 볼 수 있다.

태어나서 자라나고 죽는 양상은 어느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그 반복적이고 새로운 것 없는 생명의 순환을 사랑하는 스님과 신관의 다정(多情)함을 보고 일본의 여성은 안심하고 자신의 통과의례를 치를 성소(聖所)로서 절과 신사를 여기는 것이다.

일본의 불교는 새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종교에 가깝다. 노인 불자에 대한 궁리보다 아이들이 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궁리한다. 그리고 이 생명의 순환을 소중히 하는 의례를 일본불교의 지속가능성으로 삼는다고 생각된다.

다섯 번째로 일본에서 지갑은 여성이 쥐고 있으므로 여성을 겨냥한 불교 상

품이 많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모계사회였던 영향일까 지금도 지갑과 블랙카드는 모두 여자가 쥐고 있다.

첫째로 여성 겨냥 부적, 미인참배순례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있다.

특히 피부 좋아지는 부적, 미인부적(예쁘장한 관음보살님의 사진 혹은 미인 관음보살이라 불리는 불상에 올린 부적을 구매), 24곳의 절을 참배하면 미인이 된다는 등의 참배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절중에 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 대표적으로 泉涌寺(천용사)가 있다.



출처: 重文 觀音菩薩坐像 (楊貴妃觀音) 京都·泉涌寺⁵⁸⁾

사진의 楊貴妃觀音(양귀비관음)은 교토(京都)의 泉涌寺(천용사)의 양귀비관음당(楊貴妃觀音堂)에 모셔져 있고 비불(秘佛)이 아닌 관계로 여성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겐지모노가타리(原氏物語) 기리쓰보 권에 등장하는 기리쓰보 천황과 겐지의 어머니 기리쓰보 겐의는 각각 [장한가]에 나오는 현종과 양귀비로 비유되었는데, 이 楊貴妃觀音(양귀비관음)은 천황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기리쓰보 겐의 모습처럼 우아한 풍채를 지니고 있어 마치 두루마리를 열고 나온 기리쓰보 겐의 같아 그 신비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참배길이 더욱 아취가 있다. ⁵⁹⁾

이 양귀비 불상 1255년에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것으로 헤이안시대가 1185년에 막을 내렸으니 불상이 들어온 시점은 막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서 귀족정치가 끝난 시점이다.

황가(天皇家)로부터 신앙받은 御寺(みてら)이기도 한 泉涌寺(천용사)에 ‘천황이 정치를 했던 아름다운 옛날’을 동경하며 황가의 여인들이나 귀부인이 참배하러 왔던 역사가 현재에 이르러 미인참배 문화로 변모한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절은 수도시설이나 우물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미인참배’를 흥행시키는데 이는 일본에서 매년 각 사찰이나 마을 밑의 우물에서 물을 가져와 절과 불자의 집 마당에 정화수를 뿌리는 의식을 치루는 풍습이 존속되어 있고, 황실과 귀족 출신의 여성이 인생의 통과의례로서 노년기에는 출가하거나 범명을 가지고 비구니 사찰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례를 근거로

58) 진언종 泉涌寺派의 총본산으로 천황가(天皇家)로부터 신앙받은 御寺(みてら)이다.

59) [장한가]에서 태액지의 부용과 미양궁의 버들가지와 실로 흡사하였다고 읊어지는 양귀비의 자태는 당나라풍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여 사뭇 아리따웠을 터이나, 겐의의 온화한 성품과 가녀렸던 생전의 모습은 꽃의 새깃이나 우짚는 새소리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략) “하늘에는 비익조, 땅에서는 연리지가 됩니다.” 이렇듯 [장한가]의 시구를 굳은 사랑의 약속으로 삼았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간 겐의의 박명함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라사키 시키부. 세토우치 자쿠초 현대일본어로 역 김난주 한국어 역.2007.01.01.겐지 이야기(源氏物語) 1. 34p 한길사

삼는다.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물’ 과 ‘공주님들이 기거했던 절’ 이란 사실을 미화하여 ‘공주님이 얼굴과 다리를 씻던 물’이 솟아나는 절, 혹은 오노노코마치나 무라사키시키부과 같은 우아한 지성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미녀가 한때 몸을 의탁했다는 절이라는 홍보로 여성의 발길을 잡는다.

사랑의 행방을 짐쳐주는 사랑의 부동명왕(애염명왕)도 인기이다.

다만 일본은 남성을 위한 참배 이벤트가 적은 것이 흠이다. ‘미인참배순례’는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 ‘미남참배순례’가 없다.

예를 들어 교토에는 동사(東寺)와 같이 사천왕상이 멋있기로 유명한 사찰이 참 많은데, 이 사천왕이 있는 절을 참배하면 사천왕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이 생겨나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정력적인 남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미화담으로 ‘미남참배’를 꺼내지 않으므로 남성 단체로 절 순례에 참여하여 추억을 쌓는 일이 드물다.

일본의 어느 절이든 ‘미남참배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가장 먼저 전국의 보디빌더들이 절에 문전성시를 이루며 남자의 참배문화를 일으켜 세울지도 모르겠다. 멋있는 보디빌더를 보러 더욱 자주 절에 참배하러 가는 여성 팬들은 덤으로 받고, 여성 참배객과 남성 참배객을 동시에 올리는 일거양득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불교캐릭터를 활용하여 가정상비약을 홍보하고 불교에 관한 미담을 각색해 상품화한다.

비구니를 대표 캐릭터로 설정하여 홍보하는 가정약(家庭藥)이 있는데 일본의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복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약 ‘중장탕(中將湯)’이다. 1893년(메이지 26년)에 개발된 상품으로 약 이름에 들어간 中將라는 이름은 실존했던 비구니를 지칭한다.

“ 747년(天平19년) 藤原豊成와 그의 처 사이에 태어난 공주가 中將인데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공주는 성품이 어질어서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다.

14세에 이르러서는 계모가 공주를 살해하라고 가신(家臣)에게 명한다.

그러나 상냥한 공주를 도저히 죽이지 못한 가신은 공주를 히파리 산(ひばり山)의 청련사(靑蓮寺)에 숨긴다. 히파리 산의 후지무라가(藤村家)에 몸을 의지한 공주는 답례로 이 후지무라가(藤村家)에 부인병의 비약(秘藥)을 전했고, 이 비약의 제조법이 지금까지 가전(家傳)되어 지금의 ‘중장탕(中將湯)’이 되었다. “60)



출처: 일본가정약협회(日本家庭藥協會) 중장탕(中將湯) 61)

이 中將공주는 2018년 7~8월 나라국립박물관(奈良國立博物館)에 있었던 전시회 糸のみほとけ에 메인 작품 중 하나였던 奈良의 當麻寺(中將가 29의 나이에 열반했던 절.)소장의 ‘綴織當麻曼荼羅’를 하룻밤 만에 짠 장본인으로도 유명하다.

60) 日本家庭藥協會. 悲劇の皇女「中將姫」が考案し、創業者の母の家に伝えられていた家伝薬

61) <http://www.hmaj.com/kateiyaku/chuujou/>



출처:綴織當麻曼荼羅(部分) 眞言極樂寺. 凸版印刷株式會社 제공

中將공주의 이 ‘하룻밤만에 짠 만다라’는 박물관 기념품으로 엽서나 클리어파일로 만들어져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계모에게 구박받았다는 이야기를 현대화시켜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로 ‘미움받은 中將공주’와 같이 재판집한 동화 또한 인기를 끌었다.



출처: LINE TRAVEL⁶²⁾아미타내영극

62) <https://www.travel.co.jp/guide/article/38349/>

셋째로, 어머니가 주도하여 가족 단체로 참여하는 ‘불교 단막극’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當麻寺의 경우 매년 중장공주내영대회식(中將姬來迎大會式)이 열려, 가마를 탄 中將공주가 절을 순회하는 극(劇)을 진행해 불자들에게 눈요깃거리를 제공하고 이 극(劇)에 등장하는 인물로 불자들을 참가시켜 꾸준하게 일본 불자들의 절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대부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 아들, 딸들이 인물로 등장하며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불교 단막극을 만든다. 한번 참가하는데 비용이 한화(韓貨)로 2~3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자신이 낳은 자식을 구름 타고 내려오는 보살(神)역할로 등장시켜 주는데 자신의 아들, 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에 부모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불교 단막극은 내영대회식(來迎大會式), 오멘카부리(お面かぶり)⁶³⁾ 등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일본 전국의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신사(神社)에서 사계(四季)와 절기(節氣)에 맞춰 의례를 진행하며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종교 활동을 통한 결속력 강화, 종교적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듯이 사찰(寺刹)또한 절기(節氣)에 맞춰 위와 같은 불자의 참여가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불교 단막극’을 올린다. 이 단막극은 ‘극락정토 유사경험’이라고 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네 번째, 딸을 영애(令嬢)로 양육하는 문화로 인해 불교 상품이 명품화되어 있다.

일본에는 ‘여자의 길은 한 가지 길(一本道)이다.’ 라는 말이 있다. 여자는 여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 남자는 남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차이는 명확하다.

63) 부처의 가면을 쓰고 아미타불과 세지보살 관음보살의 뒤를 따라오는 보살 역을 불자들이 맡는다.

그리고 이 두 길에 각각의 극한(極限)이 있다. 여자만이 다다를 수 있는 극한(極限)과 남자만이 다다를 수 있는 극한(極限)이 다르다.

이것은 조리(신발)를 만들고 부채살에 종이를 바르는 천한 직종에서부터 미다이도코로(도쿠가와 쇼군의 정실로서 여종만이 살아가는 오오쿠를 통솔하는 여성 수장)나 내친왕과 같은 구름 너머의 신분의 여성에게까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그 신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극한(極限)이 다르다.

이것은 오구라 기조(小倉 紀藏)⁶⁴의 강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개념으로서 Beruf(calling)-, 즉 가직(家職)이 곧 천직(天職)으로 이어진다는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녀는 각각 이 극한에 이르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두고 일소현명(一所懸命. 목숨을 걸다) 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여자와 남자에게 준 운명이다.

또 이 극한(極限)에 와 닿기 위해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므로 남녀가 서로 다른 극한을 목표로 할지라도 선(善)을 추구하는 마음은 하나이다.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이 강조되는 일본의 사상이 헤이안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의 '공주 양육하기'에 불을 붙였다.

여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극한(極限)'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계급을 말하고 여성의 계급은 전적으로 남편의 신분과 직위에 달렸다.

남성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극한이고, 여성 전유의 극한은 곧 여성의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 또한 긍지를 가지고 한 가지 길(一本道)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64) 오구라 기조(小倉 紀藏)는 도쿄대 독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단위를 취득, 현재 교토대학대학원 교수이다. 동아시아 철학과 한국사상이 전공이고 약 10년간 한국에 유학하며 한일 양국의 철학을 비교하는 책을 발간했다. 주요저서는 '역사 인식을 극복한다', '창조하는 동아시아 문명 문화 니힐리즘',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문명>과<문화>로부터 고찰', '조선사상全史' 등

또한 경쟁력 있는 공주를 만들어 정치적 위세를 갖추기 위해 아버지들끼리 피나는 정치싸움을 한 역사가 길다.

이 정치싸움에는 정계에서 은퇴하여 불교에 귀의하고 암자에 기거하는 정치인이나 황족과의 관계도 있어 사찰(寺刹)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일본에서 딸의 존재는 생산물(生産物)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영애(令嬢)의 탄생은 성별이 여자인 덕택이 1%, 나머지 99%는 피 같은 부모의 양육노동이라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어머니는 유모와 함께 딸을 교육하는 여종이 많았으므로 직접 교육을 시키거나 젖을 물려 키우는 경우가 적었으므로 어머니의 훈육보다는 아버지의 정치적 위세와 재력(財力)에 따른 훌륭한 여종의 고용과 들어오는 혼처의 수준에 따라 여성이 ‘공주’가 되느냐 ‘귀족가의 첩실’이 되느냐 ‘일반 무사 집안의 본처’가 되느냐가 달려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아버지의 신분과 부성애의 깊이에 따라 여성이 흠 없는 공주로 성장하여 황실에 들어가느냐, 훌륭한 가문의 본처로 들어가느냐가 달렸으니 아버지의 직분과 현명한 판단에 따라 여성은 직위를 수동적으로 부여받았던 것이다.

이 흐름이 현대에도 이어져 내려온다. 지금은 어머니도 ‘공주 양육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변화된 모습이지만 자신의 딸을 ‘귀한 아가씨’로 키우는 노력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사찰(寺刹)또한 이에 대응하여 ‘고귀한 아가씨’가 누릴만한 불교 상품을 개발한다.

비단 천(여성이 사용하던 오비-허리를 묶는 천-가 오래되면 이것을 반야심경을 엮는 겹표지 삼아 재활용하기도 하고 새 비단 천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가의 오비 천은 3m에 한화로 500~2000만원에 호가한다.)으로 만든 여성의 손바닥만한 반야심경과 그 반야심경을 보관하는 비단 조각보, 그 조각보를 장식하기 위해 리본이나 구슬 형태의 보석을 꿰어 호화롭게 장식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기모노의 가슴께에 넣어두는 새끼손가락만한 불상이 들어 있는 부적부터 세로

로 성인 여성의 손바닥 두 개 크기의 양증맞은 불상까지 작을수록 섬세하게 세공된 작품은 바라볼수록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아름답다.

이것들은 절에서 기념품숍 면전에서 판매되기 보다는 따로 사찰과 인연을 맺어 세공장인을 소개받아 제작된다.

여성이 지참하는 불교 상품은 금실과 은실로 꾸며져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것이거나, 센노리큐⁶⁵⁾의 소박함을 닮은 듯이 수수한 상품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가 더 값이 나갈 것 같으나 실제로 가격은 비슷하거나 후자가 더욱 비싸다.

은은한 아름다움을 화려한 아름다움보다 더 값지게 치는 것이다.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음예예찬]에서 일본의 미학을 흐릿해 보이는 아름다움, 어둑어둑한 그림자, 음영(陰影)의 미학이라고 소개했는데 과연 그렇다.

두 불구(佛具)의 주문가만 최소 기모노 장만 값(250~300만원)이 나온다.

대부분 역사 깊은 가문(家門)이나 황가(皇家)에서 주문을 넣고, 황가의 경우에는 황실(皇室)납품이라는 직인을 얻어 장인의 물건 값이 경충 댈다. 세밀한 그림이 조각된 상품들은 여성의 장난감이나 절에 방문할 시 여성이 화장품 가방과 함께 사용하는 염주보관함, 부채 등이 대부분이고 손 안에 쥘 수 있을 법한 귀여운 불구(佛具)의 주문은 다수가 여성 손님이다.

불구가 이렇게 명품화(名品化)되어 루이비통 가방 두 개를 공항에서 면세가로 구매한 값과 똑같이 판매되어도 구매가 한창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불구(佛具)를 만드는 장인과 사찰(寺刹)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자신과 같이 큰 금액을 지불하여 불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또 다른 불자를 만나 인연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신분의 인연까지 얼굴을 넓혀서 자신과 다른 분야의 사업자를 만나기도 하고 장차 혼약을 맺기 좋은 가문을 만나볼 수 있다는 심산이 없지 않다.

65) 차노유(茶の湯)의 개조(開祖)

큰 절에서 신부, 신랑감을 소개해주는 맞선을 주최하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즉 불교의 명품화는 사찰의 역사와 장인(匠人)의 긴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쥐고 있는 ‘황금인재’가 일구어 낸 것이다.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많이 가져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부유하면 더 부유해지고 싶어 하는 탐욕은 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은 비행(非行)이라기 보단 더 풍족한 물질적 삶을 위한 도박적인 비행(飛行)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먹고 사는 일의 일환이고, 특히나 여성은 통과외례(탄생, 성인식, 결혼, 죽음)에 있어 자신에게 양질의 유전자와 상속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영구취업(永久就業)’이라고 해서 옛 일본의 여성의 삶과 다르지 않게 결혼을 통해 수동적으로 직위를 내려 받는 삶을 동경해 마지않는 여자가 많다.

이런 사회의 어두운 이면 덕택에 일본의 이름 있는 사찰은 재정난을 그나마 면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불교 상품 명품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촌구석의 절이나 빈곤한 사찰은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절을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스님이 투잡을 뛰거나(낮엔 절에서 공부 저녁엔 아르바이트 혹은 오후까지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밤에 절 운영), 오토바이를 타고 염불하러 가고, 아니면 장례식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국구로 파견되는 ‘파견승려’⁶⁶⁾에 이름을 등록하는 일이 예사가 아니다.

특히 ‘파견승려’는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가 일반 회사 파견직도 이런 전근이 없다 싶을 정도로 승려의 몸이 전국구로 이리 저리 휘둘러진다.

66)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빈궁한 사찰에 재적하는 스님이라면 ‘파견승려’를 아르바이트 삼아 생계와 사찰유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한다. / 유권준. 2017.08.14.일본 불교 지탱 해온 단가제도에 균열이 생겼다 2017.08.14. 불광미디어 <http://m.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5>

이 ‘파견승려’를 야후재팬(Yahoo Japan)에 검색하면 ‘산에 틀어박혀 수련만 하던 암자의 스님들이 가난을 못 이겨 나와서 도쿄나 오사카의 장례식장에서 염불을 해 주는데, 매우 정성스럽다. 큰 사찰에서 호화로운 절 생활을 하는 승려보다 훨씬 경전을 잘 알고 불심이 깊어 위로받았다. 일반 절에 부탁하여 치르는 장례비용의 1/3밖에 들지 않아서 좋았다’ 는 식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파견승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의문이 드는 코멘트이다. 경제적 안정을 쥐고 있지 않은 사찰의 승려는 ‘파견승려’ 꼴을 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형사찰들이 ‘불교상품의 명품화’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 ‘불교상품의 명품화’가 서민에게까지 큰 부담을 주어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법명(法名)’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서민이 큰 타격을 받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院居士·院大姉를 받기 위해서는 한화로 1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절에 시주해야 한다. 최하 등급의 ‘법명(法名)’일지라도 최소 10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宗派	信士・信女	居士・大姉	院信士・院信女	院居士・院大姉
曹洞宗	30~50万円	50~70万円	100万円~	100万円~
真言宗	30~50万円	50~70万円	80万円~	100万円~
天台宗	30~50万円	50~70万円	80万円~	100万円~
浄土宗	30~40万円	50~60万円	70万円~	-
臨済宗	30~50万円	50~80万円	-	100万円~
日蓮宗	30万円~	-	50万円~	100万円~
浄土真宗	釋〇〇 10~30万円	〇院釋〇 50万円~	-	-

※2010年 日本消費者協会アンケート

출처: 2010년 일본소비세협회 앙케이트조사(67)

일본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사회공헌도, 절의 건립과 유지에 기여한 복덕을 쟈 값을 눈에 보이는 이름으로 드러난 것이 ‘법명(法名)’이다. 물론 무덤을 위한 부동산 비용과 장례를 위해 지불해야하는 모든 비용과 스님의 염불에 감사하며 드리는 시주금은 별개로 오직 ‘법명’만 받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막대한 금액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3. 다정한 스님

일본에 불자 신도가 끊임없는 것은 실령 무정물(無情物)일지라도 부처로 여기고 손을 모아 참배하는 관습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까닭에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꾸준한 참배의 이유를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배하는 관습 외에 일본인의 꾸준한 참배에 기인하는 요소는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다정한 스님’이 많다는 것이다.

다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다만, 다정한 스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에 관해서 아래로부터 논할 것이다.

첫째로 익살스러운 재담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화상(和尚) 중 상당수는 불자들에게 익살스러운 재담을 던지며 중생들이 불교에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실례로 모오소오 국사(國師)가 등장하는 작품이 존재하고 선종(禪宗)뿐만 아니라 니치렌종(一蓮宗)의 겐세이 대사가 ‘겐세이쇼오닌 가베가끼(元政上人壁書)’라는 풍자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이 중 이쥬(一休)화상의 이야기(一休物)가 소탈하면서도 재치있는 교설을 펼치므로 아래에 소개하

67)戒名の位と戒名料の金額～宗派別の料金・費用～. 葬儀案内人
<https://www.sougisya-erabi.com/tera/ofuse/599/>

고자 한다.

“ 이 사람은 오다와라 유우스께로서, 태어나기 전 어버이 때부터 약방을 했습니다. 강매(強賣)하는 것이 천하의 범도이거니, 먼저 약의 효능부터 대강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팔고 있는 이 약은 ‘견성성불환(見性成佛丸)’이라 하여 직지인심(直指人心)이 주성분입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 4고 8고를 이겨내고 3계를 떠도는 고통과 욕도를 윤회하는 슬픔까지 평안해집니다.(중략) 현로환(顯露丸)과 비밀환(秘密丸)을 가진 약장수가 나타나 우리의 성불환(成佛丸)과 효능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천자님 칙명으로 삼정사(三井寺), 나라(奈良), 히에이산(比叡山) 근처에서 논쟁을 벌인 결과, 마침내 다이또오가 승리했..(중략) 이 약의 조제법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중국 조주의 잣나무를 도끼로 찍어 육조의 절구에 빻고 마조의 강물을 길어다가 다이또오의 그릇에 반죽해서 하꾸인의 두 손으로 환약을 빚어 현묘(玄妙)의 종지로 감싼 다음, 곁에 ;선주(禪州) 임제군(臨濟郡) 하나조노 상회 견성성불환’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약을 한 번에 꿀꺽 삼키면 거짓 견식(見識)을 토해내고 평생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략)육자환(六字丸)이 나도는데 이것을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면 범부의 보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말마의 고통에는 도무지 효과가 없습니다. 염불환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약은 값이 3원이지만 우리 **성불환**은 1원도 안됩니다. 눈뜬장님 노릇 그만 두고 어서어서 드시지 않으렵니까?”

위의 교설에 등장하는 ‘염불환’ 판매 약방의 경쟁사 약방이 ‘육자환’을 판매하는데 이 육자환은 곧 ‘나무아미타불’을 말하고, 이 육자염불만을 정성을 다해 외면 마치 먹이 한지에 스며들 듯이 자신의 불성이 부처님에게 스며들어 부처와 하나 되므로 부처에게 구제를 구할 것 없이 자연스레 부처와 한 몸이 된다는 사상이 담겨있다. 68)

이 육자염불과 견성성불, 즉 임제의 연을 물려받은 선(禪)이 아주 익살스러운 경쟁구도로 묘사되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재미가 있

68)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낫선 일본인. 99~100p운주사

다. 옛장수랑 함께 약 판매를 하러 온 행상인인지 덕망 높은 스님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친근하고 다정한 입담이다.

둘째로 일본 승려의 문체는 계의 대한 엄격정보다 아름다운 것의 무상함을 낭만적으로 풀어내는 경향이 강하고 일찍이 정토에 대한 시각적인 묘사가 압도적인 문화가 부흥해있었다..

또한 일본의 불교문학을 읽어보면 통렬한 죄의식과 번뇌에 대한 시름, 깨달음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보다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경향이 강한 작품이 다수이다.

<료오진히쇼오(染塵祕抄)>에는 다음과 같이 극락이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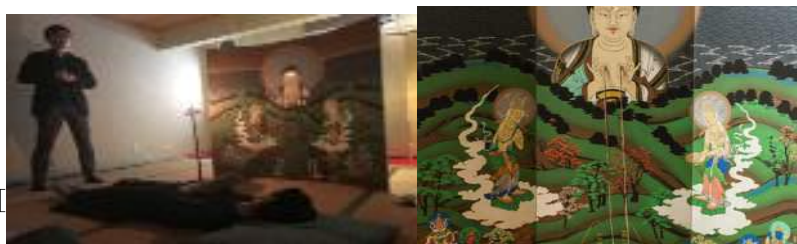
“극락정토 새천지 꿈나라 궁전, 동쪽문에 깃들어 베짜는 벌레

서방정토 누각에 등불 켜지면, 엄불웃감 짜기에 설 새 없어라”⁶⁹⁾

현대에 이르자면 마치 virtual world에 들어간 사람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묘사하는 듯 양 극락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는 일본 불교가 육근(六根)의 활동 중 감각적 활동의 예민함을 극대화시켜 불자가 불교의 인연법과 업보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극락관과 지옥관에 대한 이해에 더욱 그 특성이 빛을 발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지옥을 오감으로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타테야마 신앙(立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지역 전역은 만다라에서 볼 수 있는 지옥이 놀이동산처럼 꾸며져 있어 각 지옥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9)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99~100p
운주사

출처: [山越阿弥陀図屏風]小林美術科學⁷⁰⁾

이러 극락의 경우엔 마치 태양이 산 위로 떠오르듯이 대형크기의 산을 머리맡에 두고 올라오는 아미타만다라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발견되는 만다라 형식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것이다. 예로 「山越阿弥陀図屏風」이 있다. 서방 정토에서 내영하는 아미타불이 마치 히노마루(태양)처럼 산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불자가 임종을 맞을 준비를 할 때 이 병풍을 서쪽에 배치한다.

이 부처님의 미간에는 백호가 뚫려 있고 그 빈 구멍에 수정 구슬을 끼우는데 이 수정 구슬이 석양을 뒤로하여 빛을 받아들임으로 임종을 맞는 자로 하여금 부처님의 광명을 내리찍도록 하는데 그 부처님 광명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고 불자가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현대인에게 치면 여름날 태닝 샵에서 몸을 쨌텐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태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자가 부처님의 손과 연결되는 오색실을 쥐고 합장한 후 눈을 감고 부처님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염원과 함께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을 독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석양의 빛을 이용하여 아미타내영을 시각적 세계(virtual word)로 표현한 불상도 조성되었는데 小野市淨谷町の 淨土寺가 대표적이다.

아미타 여래의 높이 5.3 미터, 그를 호위하는 양쪽의 보살은 3.7 미터의 높이로 제작되어 당(堂)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가마쿠라 시대를 대표하는 불사(佛師)인 快慶가 손수 다뤘던 불상이다. 석양의 빛은 藪戸라 불리는 격자문(格子戸)으로부터 새어나가 삼존(三尊)을 붉게 물들이고 그 빛은 삼존의 발밑의 구름(雲座)이 희미하게 비추어지도록 한다. 참으로 아미타여래가 구름을 타고 내영하는 모습이다.

당을(堂) 감싸 안는 빛이 거울과 같은 바닥에 반사되고 다락방 구조의 공간에 위치한 삼존에 그 빛이 쏟아지는 장치이다. 이 숨 막히는 아름다움은 '빛의 무

70) 小林美術科學 공식 웹사이트. <http://kobabi.com/archives/2255/>

대 예술」 「빛의 오브제'로 불린다. 극락왕생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와 궁리(工夫)를 한데 모은 것으로, 이 옛 사람들의 상상력과 기량에 압도당한다.71)



71) 堂の眞ん中の阿弥陀如來は高さ5・3メートル、その兩脇の菩薩（ぼ・さつ）も3・7メートルの高さだ。見上げるばかりの巨像がそびえ立つ。鎌倉期を代表する仏師の一人、快慶が手けたとされる。西日は三尊の背後から差し込む。薺戸（しとみ・ど）と呼ばれる格子戸を抜けた光が三尊を赤く染め、足元の雲座もかすめる。まさに阿弥陀如來が雲に乗って迎えに来るような姿が現れる。

堂に取り込まれた光が、鏡のような床に反射して屋根裏にあたり、三尊に降り注ぐ仕掛けだ。

息をのむ美しさは「光の舞台芸術」「光のオブジェ」と言われる。極樂往生をいきいきと見せようと知恵と工夫

を凝らした、いにしえの人たちの想像力、技量に壓倒される。

西日で輝く三尊像 浄土寺 / 朝日新聞/廣川始/ 2016年02月23日

<http://www.asahi.com/area/hyogo/articles/MTW20160223290130001.html>

출처: 小野市 제공 및 朝日新聞 발췌⁷²⁾

일본의 학자 중에는 불교의 쇠퇴 원인 중 하나를 불교의 virtual world가 TV와 컴퓨터, 극장, 영화관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마치 놀이동산(amusement park)에서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등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잡이로 맘껏 탈 수 있듯이 옛 일본인은 불상과 만다라, 불적 순례지만 갖추어져 있으면 ‘아, 내가 극락정토의 문 앞에 서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 와 같은 상상을 하며 불교의 극락관과 지옥관을 즐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상력에 기초한 불교문화가 TV와 극장의 도입에 따라 순식간에 약해진 것은 서구화에 따라 virtual world를 즐기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서구화되기 전 일본은 대다수의 계층이 가내수공업에 종사했고, 가내수공업이 오래 그렇듯 어제 한 일이 오늘의 반복이라 지루했다.

이 지루함을 이겨내는 재미는 매일 신사와 절에 참배, 기도하는 습관에서 얻었다.

부처님 상 앞에 손을 모으고 ‘지금 이 지루함과 괴로움을 인내하고 선업을 쌓으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을거야.’와 같은 생각을 하며 온화한 얼굴의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나 무서운 지옥을 상상하고 제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펼쳐 이야기 거리를 지어내고 마을의 사람들과 공동작업이나 가내작업을 하는 동안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기 좋았던 것이다.

다수의 민담이나 전설이 이렇게 출현했고, 어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자신이 상상한 부처님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이어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문학인 방장기(方丈記)에서는 아름다운 것의 무상함을 계절 정물과 함께 특유의 나른함이 흐르는 문체로 풀어내는데 다음과 같다.

72) 西日で輝く三尊像 浄土寺 / 朝日新聞/廣川始/ 2016年02月23日

“봄에는 등녕쿨 물결을 본다. 보라, 구름처럼 서쪽 하늘로 향기 날리네. 여름에는 피꼬리 소리, 지저귀마다 저승 가는 산길을 약속함인가. 가을에는 귀에 가득한 쓰르라미 소리, 덧없는 세상을 슬피 우는가. 겨울에는 눈이 애달프다, 쌓이고 녹는 죄업 같아서인가. 염불에 짜증나고 독경에 싫증나면 멋대로 쉬면서 게으름 피울거나.”⁷³⁾

셋째로 일본에서 절은 가업(家業)이며 스님은 천직(天職)이며 모든 천직에는 명예(名譽.ほこり)가 있다.

작은 절에 스님이 많은 까닭은 대처승 제도로 인해 가족이 대를 이어 스님이 되고, 보통의 불가(佛家)가 대가족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는 특수성을 띄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이 아무리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신도, 불교와 같은 일본의 종교재단은 가족관계가 대부분 대가족 형태이고, 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양자를 들이는 일도 어색하지 않다.

이는 일본 전래의 가족 제도는 처음부터 가장에 의한 전권제(專權制)⁷⁴⁾이며 성씨 체계에

서 개인의 성(性)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봉건 사회 하의 가족제도에서 가명(家名)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혈통보다 오히려 폐쇄적 인륜 조직으로서의 ‘가족’을 더 중시한 것에 기인한다.

이 가명(家名)은 천직(天職)개념이 강하여 ‘집안 대대로 이어서 해온 일’을 잇는다. ‘는 의미와 함께 ‘하늘(神)이 우리 가족에게 내려준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고로 직업의 귀천과 관계없이, 조리(신발)의 새끼줄을 꼬는 천한 직업도 신(神)이 주신 일로 여기고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기미가요(君が代)에는 ‘돌이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말이 있다.

73)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낫선 일본인. 97p운주사

74)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낫선 일본인. 128p운주사

천황이라는 직업은 가업이며 이 가업은 천년 만년을 이어 존속되어야 한다는 정신은 가업(家業)을 천직(天職)으로 여기는 사상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조리(俵)의 새끼줄을 꼬는 직업도 ‘돌이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천년 만년에 대를 이어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일본의 절에서는 후계자가 없으면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가업(家業)을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거나 결혼한다.

불가에 태어난 아들과 딸은 승려가 되지 않더라도 가업을 위해 사찰 종무 행정을 담당한다.

넷째로, 불자가 스님에게 1:1의 정성스러운 상담(相談)을 요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다.

그 일례를 일본의 불교 산문 작품 ‘은수저’를 통해 엿보고자 한다.

와츠지 데츠로⁷⁵⁾의 해설에 따르면 나카 칸스케(中勘助)의 작품 ‘은수저(銀の匙)’는

나쓰메 소세키의 추천으로 도쿄 <<아사히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한다.⁷⁶⁾

이 작품은 나카 칸스케 작가가 본인의 어린 시절을 산문으로 쓴 처녀작인데, 나쓰메 소세키의 말을 빌리자면 나카 칸스케 외에 어린아이의 세계를 이토록 진실하게 그려낸 사람은 없다고 평가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내용 중 눈여겨보았던 부분을 가져왔다.

“이 대일여래 부처님의 오미쿠지(절에서 운수를 점쳐주는 제비뽑기 종이)는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먼 곳에서 일부러 그걸 뽑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있었

75) 와츠지 데츠로(1889~1960): 나라 법룡사(法隆寺)의 백제관음당에 있는 관음보살을 본인의

저서 古寺巡禮에서 ‘백제관음’이라고 최초로 지칭한 일본의 철학자로 일본 고유의 사상과 서양철학의 융합 혹은 지양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저서는 [고사(古寺)], [순례], [풍토] 등이 있다.

76) 나카 칸스케. 양윤옥 역. 2012.10.18. 은수저(銀の匙).273p 작은씨앗

다.

이모님도 언젠가 내 약한 몸이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본 적이 있었다. 본당 옆 창호문을 걷어둔 곳에 가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네.” 라면서 머리를 파르스름하게 깎은 젊은 스님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모님은 시시콜콜한 일을 스님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오미쿠지를 부탁했다. 스님은 본존 부처님 앞에 나가 잠시 절을 하고 달강달강 박자를 붙여 몇 번이 가 상자를 흔든 다음에 한 개의 오미쿠지를 뽑아 그 문구를 정성껏 종이에 적어주었다. 이모님은 네모글자(한자 및 한문을 가리키는 말)를 읽지 못하는지라 스님이 일일이 해석해가며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이 이 아이는 장래 튼튼해지고 행복하다는 것이어서 싱글벙글 기뻐하며 돌아왔다.⁷⁷⁾

지금의 관광객들이 붐비는 일본의 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지만, 쇼와 시대(1926~1989)까지만 해도 절에서 오미쿠지를 뽑을 때 스님은 본존의 부처님께 반드시 절을 드리고 점괘를 열어보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 ‘이모님’은 한자를 읽을 줄 몰랐다. 스님은 이 점괘의 해석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참을 이모님과 이야기했다.

이것만큼은 지금까지도 유효한데, 예를 들어 절에서 오미쿠지를 뽑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자를 읽지 못하면 스님이 계신 종무소에 찾아가거나 절에 꾸며진 정원을 지나다니는 스님에게 보여주면 된다. 아무리 관광객이 붐비는 절의 승려라도 이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작은 절의 경우 꼭 가정집처럼 30평 남짓한 절에 통상적으로 스님만 세 분(할아버지 스님, 아버지 스님, 아들 스님) 계신지라 일본의 불자는 스님에게 무엇을 물어보지 못하거나 상담을 받지 못해 가슴앓이 하는 불자가 없다.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불자를 위해서 스님이 한참을 골똘히 불교 서적을 들여

77) 나카 간스케. 양윤옥 역. 2012.10.18. 은수저(銀の匙).44p작은씨앗

다보다 불자의 얼굴을 보았다가 고개를 꾸벅꾸벅 거리는 정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섯째로, 불자의 경제적 빈부(貧富)나 시주금과 관계없이 스님의 설교가 정성스럽다.

그 예로 불자 스스로 삼보에 대한 귀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히에이산(比叡山)의 연력사(延曆寺)를 소개한다.

히에이산(比叡山)의 연력사(延曆寺)에 원삼대사당(元三大師堂)에서는 최소 3시간에서 만나질의 의례를 걸쳐 원삼대사의 불력(佛力)과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오미쿠지(점괘)를 열고 스님이 이를 불자에게 해석해준다. 당(堂)에 계신 스님(當執事)에게 불자가 고민을 털어놓는 것 점괘의 시작이다.

일본에 오미쿠지가 생긴 것은 에도시대로 최초로 그 오미쿠지가 발행된 곳이 원삼대사당(元三大師堂)인데 사연은 이와 같다.

원삼대사(元三大師)라 불리는 양원(良源)을 존경했던 지안대사천해(慈眼大師天海)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참모(參謀)로서 중용(重用)되었다. 원삼대사(元三大師)는 지안대사천해(慈眼大師天海)의 꿈에 나타나 계시를 전하고, 그 계시의 내용을 좇아 천해(天海)는 관음보살로부터 받은 100장의 계문(偈文, 漢詩)을 信州戸隠(지금의 나가노 현長野縣)에서 발견하고 그 계문(偈文)을 토대로 길흉을 점쳤는데, 정확한 판단을 얻었다. 이것이 오미쿠지의 기원이 되어 일본 전국의 불각(佛閣)과 신사(神社)에 널리 퍼진 것이다.⁷⁸⁾

78) 僧侶がカウンセリング&おみくじをひいてくれる。おみくじ發祥の地の『おみくじの作法』

2017.10.18. 樫出版社一同

-
- おみくじを
ひいてもらうまで**
- 1 電話で申し込む
 - 2 受付係に
悩みの内容を
相談する
 - 3 受付係が内容を判断
 - 4 僧侶との面談を設定
 - 5 僧侶による
カウンセリング
 - 6 僧侶が祈祷
 - 7 僧侶が
おみくじをひく
 - 8 おみくじの
解説を聴く
 - 9 おみくじの
内容通りに行動する
-

출처: 権出版社

점괘를 보려면 전화(81-077-578-3683)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불자의 고민을 듣고 스님이 상담한다. 불자가 이것이 점괘를 처야 할 만큼 고민인 것인가, 자력(自力)으로서의 삶, 이 괴로움을 충분히 인내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고민은 아닌가? 재고(再考)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후 승려와 면담을 설정한다. 카운슬링이 끝나고 승려가 기도를 하는데, 이는 元三大師와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은 상태에서 오미쿠지(점괘)를 열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오미쿠지는 일반적으로 어느 시기에 길한 것과 흉이 있다는 내용과 다르게 元三大師나 慈眼大師天海의 불설 내용 혹은 경전의 구절이 들어간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불구(佛句)를 점괘의 본원으로 치므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 위한 밀교적인 주술이 행해지는데 이 행사를 위해 기도시간만 1시간 소요된다. 점괘를 뽑아 승려가 그것을 불자에게 해설하고, 불자는 점괘에서 계시한 바를 상고(詳考)하여 행동에 주의한다.

이 과정이 매우 정성스러워서 하루 만나질을 꼬박 이 의례를 위해 승려와 불자가 마음을 합해 시간을 보낸다.

가진 것이 없는 불자 또한 마음 가벼이 상담할 수 있도록 주머니 사정에 따라 상담료를 3000円이나 5000円에서 시작하여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점괘를 치러준 스님의 정성에 감사하는 만큼만 낸다.

히에이산(比叡山)의 연력사(延曆寺)는 영리를 추구하는 절이 아닌 만큼, 불전 앞에 태울 수 있는 작은 양초값을 한화로 210원(20円)으로 잡는다.

가족 네 명을 위해 촛불을 태워도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나온다.

대형 양초는 교토의 큰 사찰만 가도 시주금만 5000円에서 10,000円을을 요구하는데 이곳은 350円에 그친다. 부처님께 태우는 초는 누구라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초를 누구나 피울 수 있도록 민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배려는 간사이(關西)의 절 중 연력사(延曆寺)가 유일하다.

연력사가 있는 히에이산(比叡山)은 교토 황거(皇居)의 영빈관의 가장 입구에 테 피스트리로 제작되어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 황실의 재역을 막아주는 상징이자 해가 떠오르는 곳, 불법을 수호하는 영산(靈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천태종의 본산은 히에이산과 천태종의 본원 연력사는 그 어떤 御宮寺(황가의 사찰)보다 뼈대가 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御宮寺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황가의 시주를 받는 사찰이니까 이 정도 금액은 지불하세요.’와 같은 벽(壁)이 없다.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향을 피우고, 적은 재화를 지불할지라도 양초든 향이든 큼직큼직한 것을 여유 있게 내어주고, 적게 내었을 뿐인데도 마치 부처님께 크게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이 낸 시주와 부자의 시주와 다르지 않도록 체면을 살려준다. 불자가 마음 가벼이 부처님과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다.

연력사(延曆寺)에는 千日回峰行이라는 1000일 수행이 있다.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길 정도로 엄격하여 참가 승려는 수행 중의 돌연사를 가정하여 장례비용으로 품속에 10万円만을 소지하고 목숨을 건 수행을 한다. 만행자(滿行者)는 北嶺大行滿大阿闍梨라는 칭호를 얻고 생불(生佛)과 같은 존재가 된다.⁷⁹⁾

부처님께서 한 자로 설법한 적이 없으시다는 말처럼 승려 또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히에이산의 눈길을 걷다가 기력이 쇠하여 쓰러지는 그 곳이 승려의 무덤이 된다. 이 승려를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장사를 치러주는데 이 품속에 10만 円을 넣어두는 것이 이 까닭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불심이 강한 스님들이 많은 관서(關西)에 왜 등신불은 적으냐고 의문을 품지만, 이는 스님의 불심과 관계없이 기온과 지형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토의 경우에는 여름 오후 2시쯤 지열이 한창 올라왔을 때 최고기온이 43도를 웃돈다. 또한 교토의 땅은 큼직한 불순물이 섞여있는 단단한 지형이라기 보단 부드럽고 눅눅하며, 비가 많이 온다.

여름에는 매우 습하고 겨울에는 매우 건조하다. 관서에 몇몇 등신불이 발굴되나, 거의 액체로 변해있고 마른 조각이 그 위를 살짝 떠있는 정도이다. 그 몇몇 등신불도 조성시기가 겹쳐있고 관서에 등신불을 만들어도 기후와 지형의 특성상 원형 보존이 안 되는 것을 안 이후로 관서(關西)는 등신불을 조성하지 않는 문화가 되었다.

반대로 아키타나 아오모리, 먼 홋카이도까지 아울러 일본의 서늘한 북부지역에선 다수의 등신불이 존재한다. 땅에 있는 등신불을 꺼내 모셔놓은 사당이 있고, 그 등신불에 비단 옷을 입혀 1년간 제사를 지낸 후, 해가 바뀌면 새해 참배와 함께 등신불에게 입혀 놓은 비단옷의 옷깃을 잘라 부적으로 삼는다.

물론 등신불로부터 얻은 부적은 값을 받지 않는다. 스님은 본래 값없이 가르침과 복을 베풀기 때문이다.

79))千日回峰行 (比叡山)

[https://ja.wikipedia.org/wiki/%E5%8D%83%E6%97%A5%E5%9B%9E%E5%B3%B0%E8%A1%8C_\(%E6%AF%94%E5%8F%A1%E5%B1%B1](https://ja.wikipedia.org/wiki/%E5%8D%83%E6%97%A5%E5%9B%9E%E5%B3%B0%E8%A1%8C_(%E6%AF%94%E5%8F%A1%E5%B1%B1)

더하여, 오사카의 사천왕사(四天王寺)는 인연이 되는 무연고자(無緣故者)를 무료로 회향시키고 평생 동안 염불해준다. 기댈 사람조차 없이 홀로 생을 끝낸 무연고자를 위해 무료로 독경하고 매년 사자(死者)를 위로하는 제사나 우란분재(お盆)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해 줄 이 없는 그들을 위해 스님이 기도하고 위로해준다.

스님에게 언제까지 이 불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곳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천왕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무연고자를 위한 염불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님의 정성에 불자가 귀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로, 스님이 ‘배움의 터’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과 어울리고 재가자와의 유대감 속에서 활약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불교종단대학은 절의 연중행사를 대학과 함께 한다.

사원에서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법회, 법요, 불사 등으로 불리는데 종파에 의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가장 공통된 법회는 석가모니 붓다와 관련된 것이다. 붓다의 탄생을 기리는 탄불회(誕佛會)가 4월 8일에, 붓다가 대오(大悟)한 날을 기념해 12월 8일에는 성도회(成道會), 붓다가 열반에 든 2월 15일에는 열반회(涅槃會)가 열린다.⁸⁰⁾

코마자와대학(駒澤大學)은 입학식 때 스님들이 신입생과 학부모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가 인사드리고 아마차(あまちゃ.甘茶)를 내어주었다.

탄불회(誕佛會)가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입학식이었다.

이 아마차는 산수국 또는 돌외의 잎을 말려 달인 차로 관불회(灌佛會) 때에 석가모니 상에 끼얹는 차로 사용된다.

관불회란 석가 탄신일에 불상에 甘茶를 뿌려 향을 공양하는 행사인데 이것이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 내어 준 것일까?

80)일본연구총서 간행위원회(現 한국일본학회).1997.02.28. 일본민속의 이해. 205p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에 씻기듯이, 임제종(臨濟宗) 종단의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과 그 학부모는 모두 부처님으로 탄생하였으므로 스님이 그들에게 甘茶를 공양하며 예를 다했고, 대학에서도 부처님처럼 몸을 단정히 하라는 의미에서 차를 낸 것으로 생각된다.

스님들은 검은 장삼 소매를 한 손에 쥐고 한 손으로는 甘茶를 내며 오늘같이 봄비가 오는 날에는 차가 좋습니다라고 캠퍼스를 종종걸음으로 돌아다니며 인사하였다.

신입생과 학부모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과 이제까지의 입시공부와 다른 공부방식을 추구하는 대학에 대해 한편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큰데, 스님들이 올바르게 성실한 태도를 갖추고 학부모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스님이 이처럼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난 것은 그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학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성정이 끝은 스님들과 함께 수학할 수 있으니 아이의 성장에 유익한 인연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불교종단 대학에 대해 신뢰감을 가진다. 아이를 보내도 대학에서의 비행이나 방황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고 안심하는 것이다. 방황하는 중생을 스님이 잘 캐치하고 도와줄 거라고 믿고, 실제로 코마자와대학은 그런 스님의 고민 상담 역할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교종단 대학이라는 이미지는 한층 상향된다.

동국대학교는 한국 유일의 불교종립대학교이고, 한국의 불교 종파 중 가장 규모가 큰 조계종단의 후원을 받는 학교다.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오신날과 같은 큰 행사를 제외하고 절의 연중행사를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입학식과 같이 학부모와 신입생의 얼굴을 대면하는 중요한 자리에서도 스님들이 솔선수범하여 인사하거나 교문 앞에서 따뜻한 차를 스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내어주며 환영하는 문화가 없다.

코마자와대학에서 보는 조동종 계열의 스님들은 역시 젊은 피를 가지고 있는지라 ‘배움의 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가자의 무리에 섞여 화목하게 지내고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는 불교’로서 재가자에게 다가가 더욱 부처님 공부에 친숙해지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스님은 불자와의 화합과 소통에 있어 비교적 체면치레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출가연령대가 한국에 비해 청년(2~30대)이 많고, 절 운영을 가업으로 삼아 대대로 스님이 되는 까닭에 머리를 깎는 절집 도련님의 숫자가 꾸준히 나오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 불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일본 불교는 인도나 중국 불교에서 행해지던 소신공양(燒身供養)을 부정한다.

“묻기를, 경전 가운데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 부처에게 공양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어떤가?

답하기를, 세 가지 무명(無明)의 깨침을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움에 비유한 것이다.(중략) 세 가지 무명을 깨치면 보살이라 할 수 있다.(중략)설령 육신을 태워 부처에게 공양한다 해도 어느 부처가 이것을 기뻐하며 받겠는가?“⁸¹⁾

또한 범부와 악인을 빠짐없이 제도하는 무량수여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정토교, 전쟁을 치렀을 때 우군의 전몰자는 물론 상대편 전몰자의 명복까지 빌어주며 적군도 부처의 자비 아래에 똑같이 제도된다는 믿음을 가진 역사를 통해 일본 불교의 관용과 유화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정토사상이 악용되어 ‘살아있어도 악업만 지을 사람을 일찍 죽게 하여 악업을 덜 짓게 한다’와 ‘적군을 섬멸해도 이들은 극락왕생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죽여도 된다.’와 같은 참혹한 제노사이드를 이끈 사이비 정토사상이 출현했다는 어두운 이면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미운 존재, 나를 적대시 한 존재를 품어주는 관용정신은 존중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81)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65p 운주사

이어, 일본의 선종(禪宗)은 자비행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중국 선서(禪書) <신심명信心銘> <증도가證道歌><참동계參同契><보경삼매寶鏡三昧>에는 ‘자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반면⁸²⁾일본에 임제선(臨濟禪)을 들여온 에이사이는 그 종지(宗旨)의 실천행으로 자비를 맨 앞에 세웠다.

그는 선종에서 공(空)의 이치를 옳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밖으로는 계율로 비리를 막고 안으로는 자비로서 남을 돕는다. 이를 선종이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비심을 일으켜(중략) 대보살의 청정한 계율을 갖추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되, 자신을 위해 혼자만 해탈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말했다.

모오쇼오 국사, 스즈끼 쇼오산, 시도오 부난 등도 종래 선종의 은둔독선적인 태도에 반발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자비의 덕을 강조했다.

특히 도겐(道元)은 ‘사람을 대함에 말씨가 고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운 말이란, 중생을 대할 때 먼저 자비심을 일으키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중생을 자비롭게 생각하고 갓난아이처럼 여기면서 말을 건네는 것이 고운 말이다. 덕이 있으면 칭송하고 덕이 없으면 감싸주어야 한다. 원수를 항복 받고 군자(君子)와 교류하는 데에는 고운 말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마주 대하여 고운 말을 들으면 얼굴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다. 만나지 않고도 고운 말을 들으면 가슴에 와 닿아 마음이 울린다. 고운 말은 능히 하늘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⁸³⁾

이처럼 자비의 실천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중시하고, 상호를 원만히 하며 상대방에게 말씨를 둥글게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교설을 통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선한 행위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 연민을 가지는 일을 중용했음을 알 수 있다.

82)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66p 운주사

83)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66~67p운주사

4. 불교는 많지 않은 내 취미에 관련된 것이니까.’ 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불교는 많지 않은 내 취미니까.’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개인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절에서 갖추어야 한다.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空氣)가 흐르는 종교는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반갑지 않은 종교일 것이다.

개인이 소비의 주체가 되어 불교문화를 소비해야 하는데, 불교에서 ‘개인’이라는 도저히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구분이 희미하고, 불자는 몽땅그려 ‘중생’으로 소비문화는 ‘중생이 한마음이 되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키는 불사’로 중생이라는 집단 안에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

108배하던 추억, 공양간에서 범우들과 공양을 준비하고 설거지 한 추억, 경전을 공부한 추억 등 절에서 추억을 쌓은 보살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와 같은 울력 추억이 언젠가 옛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상품으로 개발되기 어렵다.

경전 공부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범화경을 100권 구매하겠는가, 공양간에서 봉사했던 시절이 그리워서 밥술을 사겠는가, 108배가 그리워 방석을 사겠는가. 도저히 여성의 지속적인 소비를 이끌만한 추억의 소재가 없다.

왜 보살들은 이와 같은 울력 행위 외에는 딱히 절에서 추억을 쌓을 만한 기회가 없을까?

불자가 불교문화를 혼자서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절의 프로그램 구성이 명상캠프, 템플스테이, 해외불적답사, 각종 울력, 경전수업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규모가 있는 사찰이야 연극이나 사찰 음악단, 합창단, 미술동아리 등을 이루겠지만 작은 사찰이나 지역사찰은 불교문화를 활용한 미디어, 공연 콘텐츠가 부족하여 신도들의 지속적인 불교에 대한 흥미를 끌기 어렵다.

먼저 불교를 취미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소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혼자 사는 세대가 등장하는 시대에, 혼자서도 불교를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는가?

둘째로 지금의 중년 불자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연결고리로 본인이 소속된 절과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가? 중년, 노인불자가 절에 기도하러 들렀을 때 어떤 종류의 상품을 보고 구매하고 싶어 할까?

나이가 지긋한 중년이나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의 수가 적어지고 몸을 치장하는 데 들이는 소비를 대폭 줄이므로 구매영역이 좁다.

하지만 비축해 둔 재산이 가장 많은 계층이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매시장을 확충한다면 지속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되어 그 중장년층 집단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불교, 기독교와 같은 종단을 포함)의 든든한 예산이 되어줄 것이다.

IV-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은 2025년 경 65세 이상 불교인구 중 36.3%가 노인 불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다.

지금의 노인 불자의 종교 활동과 그 소비력을 상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불자의 소비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한국 DB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나마 노인복지의 방향과 노년층 불자의 복지에 대한 욕구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⁸⁴⁾ 내 일본에는 선행이 있을까 해서 일본DB를 열어 조사해보았는데, 일본의 노인 불자의 소비력을 특별히 지정하여 연구된 논문은 없었다.

필자의 미흡한 검색능력 탓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특정대상을 ‘노인불자’나 ‘중장년층 불자’로 삼아 불교 시장을 조사한 자료를 한국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모타니 고스케라는 일본에서의 ‘노인 시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84) 황춘익. (2016). 불교 노인복지 실천과 한국 노인의 복지 욕구 변화에 관한 연구 - 1994년에서 2014년까지 2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불교학, 78(0), 759-788.

이를 통해 ‘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에 ‘불교’를 결합시켜 중장년층 불자와 노인 불자의 신심(信心)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⁸⁵⁾는 헤이세이 합병(平成合併, 지방분권개혁, 시읍면의 자주적 합병과 인구요건 완화가 목적) 전에 3,200개의 시정촌과 106개국을 사비로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일본 지역 진흥과 인구 성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뤘는데 특히 노인이 돈을 장롱 속에 비축만 하고 돈을 순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노인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내었다.

그는 최근에 사상 최고 이익을 경신한 닌텐도, 유니클로, 도쿄 디즈니리조트의 공통점을 젊은이들은 물론 고령자도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 즉 Wii, 히트텍, 도쿄 디즈니시를 개발했다는 점으로 꼽았다.

이 상품들의 공통점은 고령자라도 사용하기 쉽고 즐기기 쉬운 시스템이지만 늙었다는 이미지가 없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자택의 내진개수(耐震改修), 성인병이 개선된다는 온천여행, 저금 대신 구입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고급 술, 서화(書畫)와 골동품, 무첨가 식품 등은 수전노(守錢奴)노인의 마음을 녹여버린다.

그는 노인들이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의 금융자산의 1%, 즉 14조 엔이라도 물건구입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의 경기대책보다 몇 배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레오레사기(オレオレ詐欺)가 고령자시장을 개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⁸⁶⁾

85)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정책투자은행 지역기획부 특임고문. 주요저서는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사토야마리山자본주의><관광입국의 정체><완본 유연한 일본열도를 만드는 법><세계 가두 지정학 NEXT> 등

86)모타니 고스케,2016.01.12.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デフレの正體 經濟は人口の波で動く)256p동아시아

노인은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핑계만 주어진다면 기쁘게 물건을 사러 달려간다.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렉서스(Lexus)의 판매추이는 대단히 좋은데 이것들은 실리적인 측면과 이상적인 측면의 두 가지 핑계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감세(減稅) 혹은 교체보조금이고, 후자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대외명문이다.

이처럼 이득과 대외적 명분이라는 두 핑계가 있으면 인간은 별다른 저항 없이 구매행동을 취한다. 가격보다 ‘핑계’가 중요한 것이다.

공중과 디지털화의 대책이었던 LCD텔레비전의 판매추이가 좋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텔레비전이 안 나오게 되어버리면 큰일이니까’는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핑계다.

‘내게 이득이 되니까’, ‘에너지 절약이 되니까’와 같은 수많은 핑계들 중에서 특히 강력한 핑계는 “이것은 많지 않은 내 취미에 관련된 것이니까”라는 핑계다.

예를 들어, 경기가 갑자기 악화되었던 2008년 12월에 페어레이디Z(FAIRLADY Z. 닛산자동차가 제조하는 스포츠카 라인)가 폴모텔 체인지되었는데 계획했던 수량의 2배가 팔린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선 페라리도 변함없이 잘 팔리고 있고, 할리데이비슨은 자그마치 24년 연속으로 판매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내의 이륜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최전성기의 10%대로 축소되었는데 어째서 이들은 시장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페어레이디Z도 페라리도 할리데이비슨도, 청춘 시절에 대한 동경에 집착하는 한 때의 젊은이들(=정년퇴직 前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의 대출금까지 정리하고 여유가 생긴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의 일부를 써주기만 해도 매상을 확보할 수 있다.⁸⁷⁾

즉 중년과 노인층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에서 이들 세대가 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화를 봉납하고, 그것이 불자로서의 삶의 기쁨이자 자신이 일궈온 인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여건을 조성시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고령자 개개인의 취향을 발견해야 한다. 고령자가 지갑을 열 때 사용하는 ‘핑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다로트(생산공정이 동일한 최소생산 단위) 소량생산에 따른 비용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⁸⁷⁾

한국의 불자 개개인의 취향 하나하나를 조사하기 어렵겠지만, 불자로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을 것이다. 이 관심사는 일종의 취향으로 소비와 이어질 수 있다.

더하여 독신자가 늘고 있는 사회 추세를 생각하여 혼자 사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불교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たとえば、生涯未婚率(50歳時の未婚率で代替)は、
1980年 男: 2.60%、女: 4.45%
✓ 2015年 男: 23.37%、女: 14.06%

○ 「1人暮らし高齢世帯」数

2005年:	女281万人、男105万人	計:386万人
2015年:	女420万人、男206万人	計:625万人
2040年:	女540万人、男356万人	計:896万人(※)

※ 世帯主が65歳以上である世帯の4割に相当。

(出典)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世帯数の将来推計(2018年推計)」

87) 모타니 고스케.2016.01.12.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デフレの正體 經濟は人口の波で動く)

258-259p 동아시아

88) 모타니 고스케.2016.01.12.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デフレの正體 經濟は人口の波で動く)

259p 동아시아

출처:시마자키 겐지(島崎謙治) 교수 제공

일본 인구문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 세대’의 수는 위와 같다.

2005년에는 여성 281만 명, 남성 105만 명 총 386만 명, 2015년에는 여성 420만 명, 남성 206만 명, 총 625만 명으로 추산되고 2040년에는 여성 540만 명, 남성 356만 명 총 896만 명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애미혼율(生涯未婚率)을 50세 미만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율로 대체하였을 때 1980년 남성이 2.60%, 여성이 4.45%, 2015년 남성이 23.37%, 여성이 14.06%였다.

남녀 미혼율이 심히 높은 원인으로 ‘막연히 미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관계로 출산율이 저조하다’, 여성의 부담이 크고 직업과 가정이 양립 불가하다, 집이나 땅이 없다와 같은 분석이 나온다.

이 원인 중 ‘막연히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심리’는 사찰(寺刹)과 스님이 상담에 나선다면 완화될 수 있다.

‘막연히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심리’는 독신자가 불안, 괴로움을 안고 있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 괴로움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연기법을 가르쳐주고,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스님과 상담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면, 이 ‘홀로 사는 고령화 세대의 급증’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불교에 입문하고 불교문화를 취미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가교(架橋)로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독신자 인구가 유독 많은 일본의 정황에 맞게 일본의 승려들은 혼자서 절을 참배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 두고, 혼자 온 사람들끼리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여분의 이벤트도 마련해둔다.

불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독신자가 늘고 있는 사회 추세를 생각하여 혼자 사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불교문화를 조성한다면, 불교는 그들의 고충과 외로움을 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 개개인의 작은 소비행위로부터 호평을 얻고 점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여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큰 소비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소재, 절에서 운영하기에도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프로그램은 없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 치열한 고민이 일본에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찰(寺刹)의 대소(大小)와 관계없이 각각의 절이 공식사이트를 가지고, 그 절에 소속된 스님부터 학인스님까지 정성스럽게 프로필을 제작하고 그들의 취미나 특기를 소개한다.

한국의 불자들이 스님과 대화하기 어려운 것은 스님께 말을 걸기 어려운 문화에 기인하지만, 스님이 어떤 대화주제를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님과 불자가 만났을 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좋도록 스님 본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본인의 정보를 프로필에 수록한다.

아울러 각 절마다 매달 간단한 잡지와 신문을 만들어서 신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고 잡지 기사를 제작하고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지역 주민, 사찰에 등록된 불자가 되어야 한다.



출처: 프리스타일 승려 매거진 フリーマガジン⁸⁹⁾

일본에는 ‘프리스타일의 승려들’이라는 매거진이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찰에 대한 기사 일람과 절의 이벤트 일람은 물론 pdf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불자 개인의 문의를 위한 상담구간도 존재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연계도 물론 잘 이루어져 있다.

종이에 도안을 그려 관음보살의 보관을 만들어 보고, 그 보관을 직접 쓰고 촬영한 후 기념사진을 보내는 불자도 있고, 구독하는 불자의 연령층 또한 다양하다.



출처: 프리스타일 승려 매거진フリーマガジン

달라이라마 존자가 온 것을 기념하여 잡지 표지로 장식한 것이나 위의 간행된 31호 잡지를 보아도 불자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9) 프리스타일 승려 매거진 사이트 <https://freemonk.net/about/>

2. 아시아를 순회하며 노래를 부르는 스님의 출현

藥師寺寬邦 (やくしじ かんほう) 라는 스님은 ‘스님 보컬 프로젝트’를 만들고 킷사코(藥師寺寬邦 キッサコ)라는 코러스 그룹을 결성해 교토 천룡사(天龍寺)에서 자신이 노래한 ‘반야심경(般若心經)’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렸다. 현재 ‘【MV】般若心經 cho ver. [short mix]’는 조회수 200만건을 돌파하고, 구독자 수는 4.36만 명에 추산된다.

그는 2003년에 코러스 그룹 “킷사코”을 교토에서 결성했는데 이 ‘킷사코’의 이름의 유래는 깍다거(喫茶去), ‘차나 한잔 하시게.’라는 의미로 ‘선어(禪語)에서 온 것이다.

2013년에는 약사사(藥師寺)에서 학인스님으로서의 수행을 마치고 정식으로 스님이 되면서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사용하는 부드러운 일본어로 대체하고 귀에 익은 팝의 선율과 화음을 가진 음악으로 사원(寺院) 라이브 활동을 전개한다.

‘【MV】般若心經 cho ver. [short mix]’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대만의 동림신문(東森新聞)에 160만 번, 중국의 SNS에서는 2,000만 번 재생을 각각 기록했고, 일본의 후지TV에 방영되는 등 아시아 각국 미디어에서 다루어졌다.



출처: 薬師寺寛邦 キッサコ 공식 웹 사이트

2018년 12월에는 중국 본토, 대만을 놓고 전 6군데 공연의 원 맨 라이브 투어의 개최되어 5,000명의 동원을 기록했고, 2019년 9월부터는 중국, 대만, 일본 세 나라의 10개 도시 10회 공연의 아시아 투어가 결정되었다. 그 10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台北[Taipei] Legacy, 深圳[Shenzhen] A8 Live, 廣州[Guangzhou] Mao Livehouse, 上海[Shanghai] MIFA1862, 杭州[Hangzhou] Mao Livehouse, 成都[Chengdu] CH8 Livehouse, 北京[Beijing] Tango Live House, 香港[HongKong] Academic Community Hall, HKBU, 愛媛[ehime] 松山・宝嚴寺, 京都[Kyoto] 京都府民ホールアルティ, 東京[Tokyo] 江戸川区総合文化センター小ホール



출처: 薬師寺寛邦 キッサコ 공식 웹 사이트

특히 사람의 마음(HEART)을 부처님의 음악으로 감화시킨다는 키사코 밴드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약한 반야심경의 영단어 'HEART SUTRA'를 묘하게 엮어 이 'HEART SUTRA'를 키사코 밴드만의 정체성으로 삼아 공연의 특별함을 더한다.

키사코 밴드는 어쿠스틱 음악과 같이 잔잔한 음악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크로바틱 무용을 첨가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등 획기적인 연출방식으로 청년층의 인기를 끌어 유독 콘서트에 중년 불자보다 젊은이가 많고 스탠딩 석에서 야광봉을 흔들며 '반야심경'에 흥취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한국은 '00스님의 즉문즉설'과 같은 스님과의 담회 콘서트 외에는 스님이 주최하는 음악콘서트가 없다. 스님과의 담회 콘서트에 클래식 연주단을 부를 순 있어도, 스님이 직접 음악에 나서진 않는다. 그렇다고 바라춤이나 승무와 같이 절에 전승되어진 불교무용은 젊은이의 눈을 붙잡아 두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루하고 불교의례나 제사에 사용되었던 무용은 더욱이 불자가 아닌 사람 또한 대상으로 두는 '콘서트'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키사코 밴드의 콘서트에 모여드는 사람은 독실한 불자만이 아니다. 그저 음악을

즐거려 온 사람이 많고, 음악을 즐기는 계기로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스님이 지방과 도시를 순회하며 콘서트를 하는 경우에는 스님의 법명을 넣고 ‘00스님이 콘서트 하시니 신실한 불자들은 참여하세요.’와 같은 홍보를 하고 스님의 이력을 강조한다.

킷사코밴드는 스님의 이력과 관계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음악 하나로 아시아 각국 청년의 인기를 끌었다. 스님의 이력은 딱 두 줄로 소개된다.

‘1979년 출생. 아이치현 이마바리시 출신. 임제종 해선사의 부주직(臨濟宗·海禪寺의 副住職)’

한국에서 초청강연으로 유명한 스님의 법명을 숨겨두고 그저 ‘출가한 스님과 대화’ 라는 제목을 달고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킷사코(藥師寺寬邦 キッサコ)는 불교 음악을 활용한 사업성도 눈에 띈다. 앨범 출시에 있어선 아시아 각국의 사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다음과 같다.



출처: 藥師寺寬邦 キッサコ 공식 웹 사이트

유튜브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음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는 스님과,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스님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주는 문화는 한국에서 수용할 만 하다. 한국 사찰 고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한국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부드러운 한국어로 부처님 말씀을 역(譯)하면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도 불교를 응용한 음악이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킷사코 밴드 또한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사용하는 부드러운 일본어, 자국의 언어로 대체하고, 현대의 중생들이 즐겨 듣는 팝의 선율과 화음을 가지고 음악을 제작했다.

먼저 자국 국민이 선호하는 음악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 불전의 내용을 유행하는 음율에 섞은 후 일본 음반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는 음악이나 공연이 외국에서는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스님이 킷사코 밴드와 같이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싶다면 한국적인 것, 한국의 불교야말로 음악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해야 한다.

중국의 마사 그레이엄이라고 불리는 현대무용가 진싱(金星)의 인터뷰 중 인상 깊은 말이 있다.

2007년 그녀가 베니스 페스티벌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국 팀이 불레로 음악에 맞춰 무용수들이 울 누드로 춤을 추는 작품을 올렸다.

진싱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가?”물으니 “한국에서는 이렇다 못한다.”고 대답했고 진싱은 이에 대해 ‘왜 한국에서 못 벗는 것을 외국에 나와서 벗는지, 이유도 없어 보이고 흥미를 끌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공연을 해외에서는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예술적 주관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는 한국 특유의 정서가 배어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 스타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할지라도 국제적으로 한 가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

다.”고 혹독하게 비평했다.

이처럼 한국에 킷사코 밴드와 같이 ‘스님 밴드’가 결성된다면 그 음악은 먼저 한국 불자의 가슴에 통(通)한 다음에야 아시아 각국에서 데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하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불교에 젊은 피를 순환시키려면 젊은이와 먼저 소통해야 한다.

3. 불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나한상 제작하기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는 기림사(祇林寺), 그곳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나한상이 있다. 이 나한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 같다. 마치 당시 신라사람들의 얼굴을 띄고 있는 듯하다, ‘신라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다.’ 라는 의미로 신라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땅을 불국토로 삼으려 했던 의지가 돋보이는 나한상이다.

교토(京都)에 애당엄불사(愛宕念佛寺)라는 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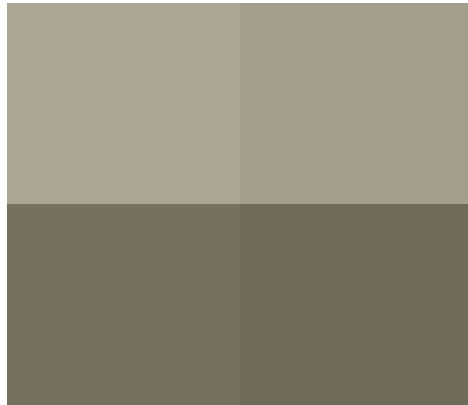
8세기 중반 칭덕천황(稱徳天皇)에 의해 교토 히가시야마(東山), 지금의 육바라밀사(六波羅蜜寺)근처에 애당사(愛宕寺)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헤이안 시대 초반에는 진언종 동사파(東寺派)의 말사(末寺)였다, 언제부턴가 황폐해진 절이었는데 카모(鴨川)강의 홍수로 당(堂)의 처마가 유실된 후로 폐사(廢寺)와 같았다. 제호천황(醍醐天皇)의 명을 받은 천태종(天台宗)의 천관대사(千觀内供.伝燈大法師)가 이 절을 다시 복흥(復興)시켰는데 칠당가람(七堂伽藍)을 갖추어칙원사(勅願寺. 천황의 칙명을 받고 지어진 사찰)로서의 체제는 갖추었지만 그 후로 흥폐를 거듭했다.

아마추어 참배자(불자)가 스스로를 조각하여 봉납하는 ‘쇼와의 나한조각상 만들기(昭和の羅漢彫り)’는 1981년에 시작하여 당초에는 오백나한이 목표였으나 10년 후에는 1200의 나한이 만들어졌다. 90)

불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얼굴을 나한상에 조각하고, 세계의 유명인을

조각하여 나한상을 만들기도 한다. 자화상이 담긴 나한상을 보기 위해 애당염불사(愛宕念仏寺)에 꾸준히 참배하러 가는 불자가 늘었고, 폐사수준에 가까웠던 애당염불사는 1981년 이후로 불자들의 발길이 잦은 절이 되었다. ‘자신의 모습을 조각하여 전시해둔 절’의 의미는 매우 컸다.

폐사(廢寺)수준이었던 사찰이 근 10년 만에 활기를 띄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출처: 위키피디아⁹¹⁾ 愛宕念仏寺

위의 사진에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 ‘테니스의 왕자’에 나오는 주인공과 트럼프 대통령, 모아이 석상이 조각되어진 나한상이다.

90) 愛宕念仏寺.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91) 愛宕念仏寺.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6%84%9B%E5%AE%95%E5%BF%B5%E4%BB%8F%E5%AF%BA>

애당염불사에는 각각의 불자 개인의 얼굴모양새와 특징적인 표정을 갖고 있다.
<전등록(傳燈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釋迦牟尼佛初生 一手指天 一手指地 周行七步 目顧四方曰 天上天下唯我獨尊’

석가모니는 ‘하늘 위와 땅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고 말했다.

인식의 주체인 마음(心)을 가진 생명이라면 어떤 존재이든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존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하는 존재인 ‘사람’이 자신의 얼굴과 똑 닮은 나한상을 조각함으로써 한번이라도 자신의 작품을 보러 절에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유정(有情)의 존재가 무정(無情)의 존재에 다정(多情)함을 품는 일을 소개하며, “IV. 일본 불교의 지속가능성은 ‘다정함’에 있다”에서는 일본의 ‘참배문화의 근간’이자 현대에 이르러 ‘참배’를 일종의 유행으로 만들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불교를 부흥시키도록 이끈 것을 ‘정(情)’으로 꼽고, 이 ‘정(情)’의 갖가지 모습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여성이 꾸준히 절에 방문하여 스님과 소통하고 불교 상품 구매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정(情)을 들어 논술했고 그러한 불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다정(多情)함으로 불자를 안아주는 일본의 스님과 절의 풍경을 소개했다.

끝으로 이러한 ‘정(情)’을 붙일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불교가 되었을 때 ‘많지 않은 내 취미 중 하나가 불교입니다.’와 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무정물(無情物)도 ‘정(情)’으로 대한다면, 무정물을 통해 내 마음 속에서 ‘다정(多情)함’을 만들어낸다. 이 다정(多情)함이 일본 불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인에게 안드로이드 관음이라는 무정물(無情物)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무정(無情)한 것도 사람이 정을 붙이면 다정(多情)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정(情)’의 본모습은 상주(常駐)함이 없는 마음이다. 비록 무정물(無情物)이 유정(有情)의 존재가 될 수는 없어도 사람의 다정(多情)함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되어 무정물(無情物)과 유정물(有情物)이 상생함으로서 부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존속할 수 있다.

불자가 진정으로 삼보(三寶)에 정(情)을 붙이고 삼보에 어깨에 부담 없이 기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한국의 불교인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조성방안에 대한 짧은 고찰은 앞서 IV-2,3,4에 소개되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아울러 불교가 안고 있는 불자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통계를 들어 설명한 선례 논문이 DB검색 결과 다섯 개 남짓한 수량으로 나왔던 점은 ‘불교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가 적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석가모니께서 설법을 하신 까닭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었고 승려집단과 계(戒)를 만드신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중생을 돕는 일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중생의 교화가 목적인 종교가 불교인만큼 불자의 존재는 승가(僧家)가 존재하는 목적과 상응한다. 불자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 연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관음과 같이 불경을 읽어주고 불자의 고민을 간단하게나마 상담해주는 로봇이 등장했다는 점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보호 시스템 설계만 잘 이루어져 있다면 데이터 세계만큼이나 삼보 중 하나인 ‘법’, 경전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다.

또한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욱 눈부신 발전을 이룬다면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단어를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듯이 로봇에게 물어보고 내가 알고자 했던 답을

일일이 페이지를 뒤적이며 찾아가는데 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물론 불교는 원전을 중시하므로 결국 책을 가르침의 초석(礎石)로 삼아 공부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의 편리성을 등한시한다거나, “인공지능과 같은 경이로운 과학기술로 인해 불교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점차 종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불교는 선(禪) 수행의 독창성을 더욱 살려야 한다.”와 같이 ‘AI와 불교의 관계’에 관해 비판적, 대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작성된 논문이 지금까지 발간된 AI와 불교를 주제로 다룬 논문의 상당수라 이 또한 염려되는 바이다.

안드로이드 관음과 스님과 불자가 사찰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경이로운 과학기술과 삼보(三寶)는 발을 맞추고 상생해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기술자와 불교 학자는 긴밀한 학술교류를 가지고 불교와 과학의 융합하는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관음을 제작할 때 기술을 제공한 것은 오사카대학 대학원 기초공학 연구과 강사 小川씨였고 그 안드로이드 관음에 들어가는 불전 내용과 불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 것은 고태사(高台寺)의 상임교사(常任教師) 後藤씨였다.

이 두 사람만의 긴밀한 학술적 교류관계로 인해 안드로이드 관음이 출현했다고 말할 수 없으나, 이공계대학과 불교대학의 끈끈한 교류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관음의 개발이 시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임제종(臨濟宗)⁹²⁾에서 그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선종(禪宗)이 불교의 다른 종파(宗派)와 다르게 한 발 앞서 과학과 불교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2) 안드로이드 관음을 오사카대학과 함께 개발한 사찰이 고태사(高台寺)이다. 이 고태사는 임제종(臨濟宗) 건인사파(建仁寺派)의 사원이다.

한국 또한 과학기술과 불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치열하게 궁리하는 연구자가 나와 기술을 가진 이공계열 학자와 긴밀한 학술교환을 이루고 과학과 불교를 융합하는 시도를 거듭하고 적절한 사업투자가 이루어 졌을 때 한국에서도 안드로이드 관음과 같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경전을 읽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사말]

먼저 이 장황하고 서툰 구석이 많은 논문을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는 ‘인공지능’, 그것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 사정을 이번 논문을 통해 자세히 소개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일본에서 안드로이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에서 소수(小數)의 기사를 통해 다루어졌고 그 내용마저 잘못된 정보가 많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삼보 중 ‘法’을 보관하는 창고로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미래가 유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례로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관음’과 이 안드로이드 관음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일본의 AI 응용 현황 세 요소를 관통한 정보나 논문을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서야 일본의 임제종(臨濟宗)에서 공학연구소와 활발한 학술교류를 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데에 힘쓰고, 단가제도나 각종 불교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본에서 불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고태사(高台寺)에서 발간된 책 ‘안드로이드 관음이 반야심경을 말하기 시작했다’를 번역하여 소개하고 해외에 발행된 ‘안드로이드 관음’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여 정리했습니다.

생소한 공학 용어와 철학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먼저 공학 용어를 학습하고 번역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공학자가 이 책을 번역한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불교 용어를 학습한 후에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내용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IV’에서는 ‘안드로이드 관음’이 환영받았던 이유를 ‘다정(多情)’한 불교 ‘라고 소개하고, 안드로이드 관음이 나오기 전 일본 불교의 풍경과 안드로이드 출현 후의 풍경을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IV.-3. 다정한 스님” 편은 제 또래의 스님들과의 추억이 떠오르는 요소 또한 첨가하여 기획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Ⅲ의 2. 와 3. 인 ‘일본 여성은 왜 절에 가는가?’와 ‘다정한 스님’ 에 수록된 내용 또한 제가 일본의 코마자와 대학(駒澤大學)과 나라현립대학(奈良縣立大學)에서 유학하면서 얻었던 생각들이 녹아있습니다.

따라서 IV에는 다소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밝힙니다.

코마자와 대학에 유학했던 시절, 제가 살았던 기숙사 옆에는 스님이 거처하는 합숙소가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마당에 버드나무 한 그루를 두고 건너편의 베란다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도 건너편에 계신 스님이 알아들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이따금 바람을 쐬러 밤에 맥주 캔을 들고 베란대로 나오면 건너편 베란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절의 젊은 도련님들을 우연히 마주치곤 했는데, 서로 ‘내가 하고 있는 수행과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와 같은 실없는 고충담(苦衷談)이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 한심하면서도 어딘가 귀여운 구석이 있는 이야기들을 제 술안주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아본 놈이 공부도 잘 한다고, 이 젊은 도련님들은 조동종 종파의 절집 아들들이었는데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행만큼에선 참 열심이었습니다.

코마자와 대학의 나이가 지긋한 스님들은 모두 교수님이고, 그 외 머리가 파릇하게 깎인 스님들은 전부 제 또래였습니다.

대학에 만학도 스님이 거의 없는 까닭일까, 스님도 결국 우리와 같이 가족을 가지고 ‘00씨네 아들딸’로 소개되곤 하니깐 웬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까닭일까 학과 소속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젊은 스님들과 스스럼없이 우정을 쌓는 일이 일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어린 스님들 함께 걸어가던 아침 등굣길은 참 유쾌했는데 이러한 산보(散步) 시간에 나누었던 실없는 대화로부터 얻은 자잘한 이야기가 “IV. 일본 불교의 지속가능성은 ‘다정함’에 있다”의 소재로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출가자의 연령대가 낮아져, 파릇파릇한 스님들이 재가자 대학생들처럼 불교종단의 대학을 다니는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마자와 대학의 젊은 스님은 ‘배움의 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가자의 무리에 섞여 화목하게 지내고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는 불교’로서 재가자에게 다가가가 더욱 부처님 공부에 친숙해지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재가자들과 우정을 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본의 불교문화가 ‘다정한 불교’와 ‘다정한 스님’을 낳은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학문에는 다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코마자와 대학의 은사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심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은 정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질을 깊게 파고드는 학문일수록 공부하는 사람이 다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공부는 타인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으면 맥이 끊어집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에 대해 불교만큼 깊게 파고드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는 그 어떤 학문보다 다정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교에 정이 들게 하는 ‘다정한 불교’는 비단 일본에서만 인정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불교의 ‘지속가능성’은 다정함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무정물로서 안드로이드 관음이 세상에 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정물(無情物)이 비록 유정(有情)의 존재가 될 수는 없어도 사람의 다정(多情)함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정물(無情物)인 안드로이드 관음과 유정물(有情物)인 인간의 화합을 통해, 일체(一切)는 상생하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2019년 8월 고태사(高台寺)에 현장답사를 가서 ‘안드로이드 관음’을 체험한 후에 쓴 논문이기 때문에 좀 더 안드로이드 관음이라는 주제를 친근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전체를 통틀어 제 스스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억이 없는 소재, 모르는 것을 구태여 아는 척 하며 써야 하는 소재는 과감히 버리고 썼는데도 목표했던 분량(100장 내)대로 분량조절이 안 된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번역되지 않은 정보를 이 논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통계와 종교연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일본 국민에게 공개된 일본정부기관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일본에서 인구와 의료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료를 얻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주제를 소찰(小察)하였다고 하기엔 아직 공부가 부족한 학부생입니다.

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목(眼目)이 부끄러운 점으로 인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다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문을 쓰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參考文獻>

☞국내 자료

테크니들. 2018.07.10.,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와이즈맵

닛케이 톱리더. (편집)닛케이 빅데이터. 신희원 역. 2018.02.12. 일본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페이퍼로드

유권준. 2018.05.16. 중국 용천사, 로봇스님 '센얼' 3세대 개발 착수. 불광미디어
<http://www.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6>

나카무라 하지메. 박용길 역. 2002.05.25. 가까운 일본 낯선 일본인. 운주사

달라이 라마.이해심, 삼목 역. 2007.05.22. 과학과 불교. 하늘북.

김성철. 2018.09.01. 불교와 AI, 인공지능의 용 그림에 불교의 눈 그리기.
<불교평론> 75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설잠스님 찬撰. 무비스님 강설. 2018,10.15.무비스님이 풀어 쓴 김시습의 범성계 선해, 담엔북스

김용안. 2009.03.26.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제이앤씨

장형철. (2018).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서 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인구 변동의 특징 - 연령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2(1), 181-219.

이범수. (2013). 한국의 노인 자살과 불교계 대처 방안 -2025년 불교인구 동향 예측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 66(0), 351-386

무라사키 시키부. 세토우치 자쿠초 현대일본어로 역 김난주 한국어역.2007.01.01. 겐지 이야기(源氏物語) 1. 한길사

유권준. 2017.08.14.일본 불교 지탱해온 단가제도에 균열이 생겼다 2017.08.14. 불광미디어 <http://m.bulk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5>

나카 간스케. 양윤옥 역. 2012.10.18. 은수저(銀の匙).작은씨앗

일본연구총서 간행위원회(現 한국일본학회).1997.02.28. 일본민속의 이해.

황춘익. (2016). 불교 노인복지 실천과 한국 노인의 복지 욕구 변화에 관한 연구 - 1994년에서 2014까지 2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불교학, 78(0),

모타니 고스케.2016.01.12.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デフレの正體 經濟は人口の波で動く)동아시아

다마키 고시로. 이원섭 역.2001.04.20. 화엄경(華嚴經). 현암사

☞외국 자료

A Robot Monk Captivates China, Mixing Spiritualit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atlow, Didi Kirsten . New York Times (Online) , New York: New York Times Company. Apr 27, 2016.

Buddhists are turning to robots to spread their message.

Holley, Peter . Telegraph-Journal ; Saint John, N.B. [Saint John, N.B]24 Aug 2019: B.14.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shaping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The New Times; Kigali [Kigali]13 May 2018.

竹村 正治. 高台寺 監修. 2019.04.26. マンガ 안드로이드 観音が般若心經を語り始めた . かもがわ出版

[A I と國會審議]. 決算委員會 専門員. 秋谷薫司. 立法と調査 2018. 4 No. 399 (參議院常任委員會調査室・特別調査室)

國會會議錄等の分析高度化への人工知能利活用の可能性検証に関する調査研究
- 平成29年度電子經濟産業省構築事業調査報告書/ 平成 30 年 3 月株式會社日立
コンサルティング

AI가 작성한 기사 원문(日本語)

<https://www.chukei-ai.com/>

宗教年監

http://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hakusho_nenjihokokusho/shuky

[o_nenkan/index.html](http://www.o_nenkan/index.html)

日本家庭薬協会 中將湯

<http://www.hmaj.com/kateiyaku/chuujou/>

阿彌陀來迎劇

<https://www.travel.co.jp/guide/article/38349/>

西日で輝く三尊像 浄土寺 / 朝日新聞/廣川始/ 2016年02月23日

<http://www.asahi.com/area/hyogo/articles/MTW20160223290130001.html>

戒名の位と戒名料の金額～宗派別の料金・費用～. 葬儀案内人

<https://www.sougisya-erabi.com/tera/ofuse/599/>

僧侶がカウンセリング&おみくじをひいてくれる。おみくじ發祥の地の『おみくじの作法』 2017.10.18. 榎出版社一同

千日回峰行 (比叡山)

[https://ja.wikipedia.org/wiki/%E5%8D%83%E6%97%A5%E5%9B%9E%E5%B3%B0%E8%A1%8C_\(%E6%AF%94%E5%8F%A1%E5%B1%B1\)](https://ja.wikipedia.org/wiki/%E5%8D%83%E6%97%A5%E5%9B%9E%E5%B3%B0%E8%A1%8C_(%E6%AF%94%E5%8F%A1%E5%B1%B1))

프리스트아일 승려 매거진 사이트

<https://freemonk.net/about/>

愛宕念仏寺.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

<https://ja.wikipedia.org/wiki/%E6%84%9B%E5%AE%95%E5%BF%B5%E4%BB%8F%E5%AF%BA>

日本家庭薬協会. 悲劇の皇女「中將姫」が考案し、創業者の母の家に伝えられていた家伝薬

戒名の位と戒名料の金額～宗派別の料金・費用～. 葬儀案内人

<https://www.sougisya-erabi.com/tera/ofuse/599/>